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보스톤 총영사관 주최 '2018 BIO 환영 PRE-NIGHT 네트워킹 만찬'에 참여한 한국 바이오 관련 대표단과 보스톤 지역 한인사회 바이오 인재들



서퍽(Suffolk)카운티 지검 검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린다 챔피언

한국의 바이오붐, 바이오 메카 보스톤서도 후끈

850명 대표단 참여, 캐나다 제외하곤 가장 많아
보스톤총영사관 네트워킹 만찬에도 140명 참여
보스톤 바이오 급성장 한국에서도 복사판 성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스톤에서 개최되고 있는 2018 바이오국제컨벤션에 사상 최대인 850명의 한국 바이오 및 제약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올해 컨벤션 등록자 수는 74개국에서 1만 6천명으로 캐나다를 제외

하고 두번째로 많은 수의 참가자다. 보스톤 총영사관이 한국의 바이오 산업 관련 인력들과 보스톤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바이오 및 관련 한인들과의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한 '2018 BIO 환영 PRE-NIGHT 네트워킹 만찬

'에 참여한 인원도 140여명이었다. 당초 100여명 인원 내외로 초대할 계획이었지만 참가자수가 크게 늘었다고 영사관 관계자가 귀뜸했다. 3일 뉴튼 소재 크라운호텔에서 개최된 네트워킹 만찬에 참여한 벤처투자사 '브래틀스퀘어 어드바이저스' 스펜서 남 대표는 "보스톤에 이처럼 많은 한국 바이오인들이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런 행사도 보스톤 생활에서 처음" 이라고 밝혔다. 보스톤이 마지막으로 바 >>3면으로 계속

린다 챔피언 검사 후보 모금 만찬

현재 보유액 5명의 후보중 가장 낮아
한인 2세 출마 한인사회의 관심필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서퍽(Suffolk)카운티 지검 검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린다 챔피언 선거자금 만찬이 노스앤도버 소재 다문화교회에서 6월 9일 6시 30분 개최된다.

이번 챔피언 선거자금 만찬은 강원도민회와 국제선교회의 주최로 >>5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출발
비수기 최저가
인천행 항공권

\$995 부터

성인/왕복요금
세금, 유류비포함

IACE TRAVEL
MON-FRI 11PM-9PM EST
617-424-8956
866-619-4223
info@iace-korea.com
www.iace-usa.com/ko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T-BO PLAY

보스톤코리아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KBS MBC O385 O385 Plus tvN XBS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ENGEL & VÖLKERS

주택 | 콘도 | 커머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NGEL & VÖLKERS
EILEEN PARK
REALTOR |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한국 바이오, 세계시장 진출에 강한 열정 보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주최 바이오비즈니스포럼 만찬에 300명 북새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코트라가 주최하고 산자부, 보스톤총영사관, 한국보건진흥원 등이 후원한 '바이오비즈니스포럼 및 네트워킹 만찬'에 한국 바이오 관련 대표단 매스바이오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 바이오 업계의 세계시장 진출의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보스톤컨벤션센터(BECE) 인근 월드트레이드센터볼룸에서 5일 밤 열린 비즈니스포럼 및 만찬은 한국 컨벤션 참가자들에게 매사추세츠의 바이오 현황을 소개하고 미국 진출 및 국제적 바이오기업 협력에 관한 소개의 자리였다.

포럼에 참가한 조셉 데이먼드 바이오테크혁신기구(BIO) 국제관계수석부사장은 "바이오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시스템에 진출하기 위해 결코 큰 기업일 필요가 없다. 작은

기업이라도 국제적인 파트너를 찾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데이먼드 수석부사장은 "이번 컨벤션을 통해 3일동안 8500건의 파트너 미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모든 미팅이 국제협력(global collaboration)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데이먼드 수석부사장은 "컨벤션을 개최한지 25년째 되는 해로 20여년전엔 불과 2천명이 모였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참가자의 40%가 세계인이며 1만7천명이 모일 것을 상상치 못했다. 인내를 갖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보스톤국제컨벤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산업 컨벤션이며 현장 미팅이 아닌 사전 예약 미팅이 특징이다. 따라서 부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사전예약을 통한 미팅은 물론 컨벤션 현장미팅까지 훨씬 활발한 파트너찾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미바이오산

업위원회(KABIC) 회장 김종성 보스톤대학(BU)교수는 (보스톤바이오혁신생태계의 알려진 비밀과 숨겨진 비밀)이란 제목으로 보스톤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허브가 된 원동력을 공개했다.

김교수는 숨겨진 비밀로 많은 논문과 라이선스로 유명한 MIT 로버트 랑거 박사, 민간회사대표들이 구성한 IBE,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랩센트럴의 운영방식, 케임브리지의 비즈니스 환경 등을 꼽았다.

특히 김교수는 "랩센트럴이 독특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2014년 이래 78개 스타트업 회사들을 출범시키고 20억달러의 벤처캐피탈을 끌어들이었다" 며 "이는 랩센트럴에 참여한 회사들이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해 같이 연구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밥먹고, 같이 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랩센트럴이 MIT, 브로드연구소 등 연구소와 거대한 제약회사들에 둘러싸여 있는 점이 네트워킹형성에 중요하며 또한 1년에 164개의 이벤트, 즉 주당 3회의 이벤트가 랩센트럴을 다른 곳의 창업인큐



(좌)조셉 데이먼드 바이오테크혁신기구(BIO) 국제관계수석부사장 (우) 한미바이오산업위원회(KABIC) 회장 김종성 보스톤대학(BU)교수



'바이오비즈니스포럼 및 네트워킹 만찬'에 한국 바이오 관련 대표단 매스바이오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베이터와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스티븐 로스 제약특허 소송 변호사, 아메니티테라퓨틱의 정지은 부소장, 네오인문테크의 박지한 CTO 등이 연사로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엔 김종성 교수의 사회로 엘리베

이터 토크가 이뤄졌다.

이날 행사는 당초 150명을 예상하고 준비된 행사였지만 300여명 이상이 찾아 상당수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선채로 행사 진행을 지켜 보았다. 참가 인원 일부는 일찍 자리를 뜨기도 했다.

editor@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한국 바이오 급성장, 바이오 컨벤션서 확연히 드러나

▶▶1면에 이어서

이오컨벤션을 개최했던 것은 6년전인 2012년이였다. 그때와 비교해 매사추세츠 바이오테크산업은 확연히 달라졌다. 매사추세츠는 케임브리지 중심지로 세계 바이오의 허브로 성장했다. 매사추세츠바이오테크교육재단(MBEF)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매사추세츠주 바이오 인력은 미국내 최대인 7만명을 넘어섰다.

김용현 총영사는 “보스톤에 부임해서 처음 알게 된 것은 보스톤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보틱스, 첨단 기술 혁신을 이끌어 가는 곳으로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우리(한국)와 협력할 게 많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올해 초 보스톤 바이오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이번 6월 컨벤션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보스톤이 세계 No1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는 동안 한국의 바이오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서정선 바이오 협회장은 한국 바이오의 변천사를 경험으로 이야기했다. “17년 전에 바이오국제컨벤션에 참여했을 때는 존재감이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몇 년 전부터는 이 사람들(컨벤션주최측)이 저희들을 찾아와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

서회장은 “올해는 조셉 데이먼드 수석부사장이 와서 ‘캐나다에 이어 2위인데 외국인 참석자중 실제적으로 1위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며 많은 참석자 수에 저도 놀랐다. 한국이 참석자 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세계화되고 바이오 산업에 선두로 가는 계기가 되는 것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미국바이오컨벤션 주최기구인 바이오혁신기구(BIO)도 이런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다. 카라 넬슨 바이오(BIO) 국제관계 매니저는 “한국은 상업화와 국제협력에 집중된 바이오 테크산업을 개발해왔다. 국내총생산의 약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 투자의 34%가 건강관련 연구 개발투자다. 이러한 바이오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바이오국제컨벤션에서 확연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넬슨씨는 “꾸준한 바이오 산업의 모멘텀과 함께 한국은 바이오컨벤션 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더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영사관 주최 ‘네트워킹 만찬’에서 발표한 크리스 김 노바티오(벤처캐피탈회사) 대표는 자신이 한국에서 펀드를 모았던 6년간의 경험을 바

탕으로 바이오 산업 관련 차트를 만들어 한눈에 보스톤과 한국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대표는 “2012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과 보스톤이 정반대에 있어 놀랐다”고 이야기 했을 정도다. 그러나 2018년은 전혀 달라졌다.

〈학계의 발견이 의약품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요소들〉이란 제목의 이 차트는 학교및 연구소, 상용화 및 제품화, 초기투자(VC), 바이오전문가, 정부보조, 대형회사, 캐피탈마켓, 성공담 등을 범주로 비교했다. 2011년에는 보스톤과 유사한 규모는 학교연구소와 정부보조 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8년에 이르러서는 학교연구소, 정부보조뿐만 아니라 초기투자 와 대형회사들도 보스톤과 유사한 규모로 성장했다. 과거 10분의 1에 불과했던 나머지 분야도 모두 6-7정도 규모로 성장해 있다.

김대표는 “아직도 많은 (바이오 산업의) 성장기회가 남아 있지만 한국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보스톤의 성장을 모방하듯 한국은 계속 변창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국이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참가 대표단이 아닌 전시회에 참가한 회사 수로



(좌)네트워킹 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용현 총영사 (우) 네트워킹 만찬에서 한국 바이오 컨벤션 참여 변천사를 설명한 서정선 한국 바이오 협회장



(좌)세계 No. 1 바이오 클러스터가 된 보스톤의 알려지지 않는 비결을 중심으로 발표한 김종성 BU 교수 (우)〈학계의 발견이 의약품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요소들〉 차트를 통해 외국 벤처캐피탈로서 한국의 바이오 발전상을 설명하고 있는 크리스 김 대표

보면 다르다. 이번 컨벤션 웹사이트 <https://mybio.org>에 따르면 전시기업은 캐나다가 131개 회사, 중국은 125개 회사, 일본은 57개, 한국은 5개 회사에 불과했지만 컨벤션 실제 전시 기업은 코트라지원 14개회사를 비롯 30여개에 달했다.

일본 거대 제약회사 다케다

(Takeda)는 지난해 케임브리지 소재 제약회사 아리에드(Ariad)를 인수한 데 이어 최근 렉싱턴 소재 아일랜드 제약회사 샤이어(Shire)를 인수했다. 일본 제약회사들의 공격적 국제경영의 한 사례일 뿐이다. 보스톤에 한국 제약회사는 제네스코가 전부다.

editor@bostonkorea.com



SAT Plus Sprilg Schedule 2018

Saturday Class Start March 17, 2018

Class	Time	
SAT II / MATH IIC Prep	9:00 AM - 11:00 AM	3/17/18 - 5/26/18 Sat
Chemistry AP/ SAT II Prep	1:00 PM - 3:00 PM	3/17/18 - 5/26/18
Biology AP/ SAT II Prep	3:30 PM - 5:30 PM	3/17/18 - 5/26/18
SAT II / MATH IC Prep	6:00 PM - 8:00 PM	3/24/18 - 5/26/18

SAT Plus Summer Schedule 2018

July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9/18 - 7/27/18 Mon-Fri
Biology Preview	1:00 PM - 3:00 PM	7/9/18 - 7/30/18 Mon/Wed/Fri
Chemistry Preview	4:00 PM - 6:00 PM	7/9/18 - 7/30/18 Mon/Wed/Fri

August 2018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6 - 8/24 Mon-Fri
SAT I Prep	1:00 PM - 5:00 PM	8/6 - 8/24 Mon-Fri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영화 <독전> 티켓 이벤트 당첨자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영화 <독전>의 보스톤 개봉 기념 무료 티켓 이벤트에서 총 11명의 당선자가 선정됐다. 보스톤코리아닷컴에서 6일간 실시된 무료 영화 티켓 이벤트에는 20여명의 독자가 참여했다.

무료 티켓 교환권을 받게 될 당선자들은 보스톤코리아(bostonkorean@hotmail.com)에 티켓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보내거나, 보스톤코리아 사무실(161 Harvard Avenue, Suite 4, Allston, MA 02134)에서 무료 티켓 교환권을 직접 픽업할 수 있다.

이메일로 받은 티켓은 프린트 해서 가져가면

매표소에서 2장의 티켓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티켓은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평일 상영분의 영화만 무료 관람 가능하며 주말 관람은 불가능하다.

영화 <독전>은 8일 금요일부터 보스톤 다운타운 소재 AMC 로우스 보스톤 커먼에서 개봉한다. 당첨자의 아이디는 다음과 같다.

퍼슨 (akzm9797@naver.com)

독: 독기처럼 살려다

전: 전재산탕진

김파랑 (bluetoothkim@gmail.com)

독: 독이 든 사과를 먹었다고

전: 전부다 '백설공주' 가 되는 건 아니다.



hyesitherlee (hyesitherlee@gmail.com)

독- 독도를 사수하기위해서 독수리 오형제가 떴다

전 - 전라도 사투리로 "니들 다 디저 번져망게"

hshs (hansz@bc.edu)

독: 독립선언문이 발표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전: 국민은 가슴 깊이 기뻐했다.

히히 (kwonnayun97@gmail.com)

독: 독수리 머리는

전: 전체가 다 대머리

하잇 (jenny11@gmail.com)

독: 독전이 보스톤에서도 상영된다니!

전: 전 벌써부터 너무 기대됩니다요!

칭칭 (dotol1216@gmail.com)

조: 조진웅 배우를 보스톤 영화관에서 보게 되다니!

진: 진짜 한국에선 상상도 못해봤던 경험이에요

웅: 웅장한 사운드와 함께 타지에서 드디어 알아들을 수 있는 영화를 보게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빛쟁이 (m0423154@gmail.com)

독: 한놈...

전: 화 안... 받아

bargainp (hipark16@iskl.edu.my)

조: 조진웅

진: 진짜 잘생겼지 않냐?

웅: 웅~ 인정~

MEUN (dmeun@hotmail.com)

조금 더 특별하고싶은 당신을 위해

진심을 담았습니다

웅진 코웨이 한뼘 정수기

동사람 (lovecat323@hanmail.net)

독: 독...독...??(knock...knock...??) 누구세요? (Who are you?)...

전: 전데요? ㅋㅋㅋ

hsb@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아외식재료의 많은 단점을 위해
홍삼정를 밖에서도 간편하게!

땀을 많이 흘리고 기력이 떨어지는
여름엔 기를 보충해주는
홍삼이 좋습니다.

1포에 홍삼 농축액 3,000mg

정관장

홍삼정 에브리타임

홍삼정홍삼과 홍삼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일품하게



6월 스페셜 프로모션

3+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30 상당 증정

화애락본 구입시
10포 무료증정

\$70 상당 증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30 상당 증정

천녹정 구입시
천녹정 30g 2개 무료증정

\$70 상당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폐북친구를 신청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김용' 세계은행총재가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해왔다. 한국언론은 김용총재라 약칭하지만 그의 본래 이름은 Jim Yong Kim이다. 최근 김용총재에 대한 기사를 보스톤코리아에 게재했었던 것과 관련 있나 생각하며 친구신청 수락을 꾸욱 눌렀다. 친구를 신청한 이유도 궁금했다.

친구신청을 수락한지 하루째 월요일 오후 6시 메신저에 메시지가 떴다. 첫마디가 정겨워도 너무 정겹다. "Hello Brother How are you doing?" 김용총재를 취재차 만나기는 했지만 '브라더'라고 칭하다니. 그간 무슨 내적 변화를 겪은 것인가? 그의 페이스북 페이지로 들어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세계은행장 활동 사진이 있고 세계은행장으로 말했을 만한 글도 있었다.

개운치 않았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답변해야 했다. 호칭도 고민했지만 Mr.로 하기로 했다. 관찮다고 말하고 김총재는 어떤가 물었다. 그랬더니 바로 세계은행에서 주는 그래프를 알고 있는지 물어왔다. 느닷없이 그래프라니.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돈을 주겠다니... 정말 반가운 일이지만 뭔가 냄새가 났다. 이메일을 주면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겠다.

이메일 내용은 이렇다. 세계은행에



서 개인 및 회사에 그래프를 주는데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하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권 또는 다른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것이었다. 신종 사기였다.

최근 김용현 총영사도 이상한 페이스북 신청자들을 지적한 바 있었다. 유엔 사무차장이 친구를 맺자는 등 미국군 장성 등이 친구를 맺자는 이상한 신청이 잦아지며 신종사기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렇게 빨리 페이스북 사기를 세계은행총재를 통해 확인하게 될 줄은 몰랐다.

어떤 경우든 요청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그래프, 상금을 주겠다고 하면 반드시 사기와 연관된다. 또한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는 100%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참고로 실제 김용 총재 페이스북 계정은 사기로 추정되는 인물의 계정 (Jim Yong Kim)과 달리 JimYongKimWBG였다.

페이스북을 비롯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이런 유치한 사기수법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별로 신경쓰지 않고 개인정보를 내주는 실수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친구신청이 된 상태인 가짜 김용총재 계정(좌), 실제 김용총재 계정은 친구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린다 챔피언 검사 후보 모금 만찬

▶▶1면에 이어서
개최된다. 기부를 원하는 한인들은 누구나 이번 만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체크로 기부해야 한다. 유영심 전 노인회장은 "2세를 위한 뜻깊은 일에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 한인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한국계 다문화 가정 출신의 린다 챔피언 변호사는 올해말 출마포기 의사를 밝힌 단 콘리 검사의 자리에 도전장을 낸 다섯 민주당 후보중 한 명이다. 서푼카운티는 보스톤, 첼시, 리버어, 윈스롭을 관할하는 카운티로 대중의 주목도가 높은 카운티다.

서푼카운티 검사직에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경선 후보 5명은 에반드로 카발로 매사추세츠 하원의원, 그렉 해닝 검사보, 새년 맥컬리프 그리고 레이첼 톨린스 변호사다.

매사추세츠 선거정치자금청 (OCPF)의 선거자금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은퇴하는 단 콘리의 검사보인 그렉 해닝은 6월 7일 현재 타 후보와 비교해 월등히 앞서는 \$179,875.26의 선거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 뒤 새년 맥컬리프 후보가 \$88,260.31, 레이첼 톨린스 후보가 \$84,464.49을 보유해 2위군을 형성하고 있다. 에반드로 카발로 매사추세

츠 하원의원은 \$41,850.53 선거자금을, 그리고 린다 챔피언 후보가 가장 적은 \$20,037.72의 선거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선거자금의 양은 선거판세에서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안병학 북미강원도총연합회 회장은 "린다 챔피언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선거자금 모금에 뒤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인사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며 한인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린다 챔피언 변호사는 서푼카운티 검사로서 일했으며 서푼대학 수석 강사 및 노스이스턴 대학 비상근 교수를 맡고 있기도 하다. 뉴베리칼리지를 야간으로 다닌 후 서푼법대를 졸업한 수재다. 보스톤 법대에서 은행 및 금융법을 공부했다.

채피언 변호사는 선거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을 전 검사출신의 교육가 그리고 사회봉사자라고 밝히고 사소한 경범죄에 집중하기 보다는 "강력범죄 및 금융범죄 기소에 초점을 맞춰 서푼카운티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hsb@bostonkorea.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Bruxir Crown
- 미용 치과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 밤10시까지

KAJU

가주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한인2세 작가, 이순신 장군 소재 영문 동화책 출시

이순신 장군 소년시절을 소설화한 호평 받은 책, 한국 역사와 문화 알림에 기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인 2세 헤레나 리씨가 영문 동화책으로는 최초로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거북선(The Turtle Ship)'이라는 책을 5일 출시했다. 출시 당일 아마존에 새로 출시된 아시아 동화책 중 1위에 오를 정도로 반응이 좋다. 반즈앤노블 등 온라인 전체 매진 상태이며 다문화/소수민족 전문 출판사 리&로우(Lee & Low)사이트 통해서만 구매가능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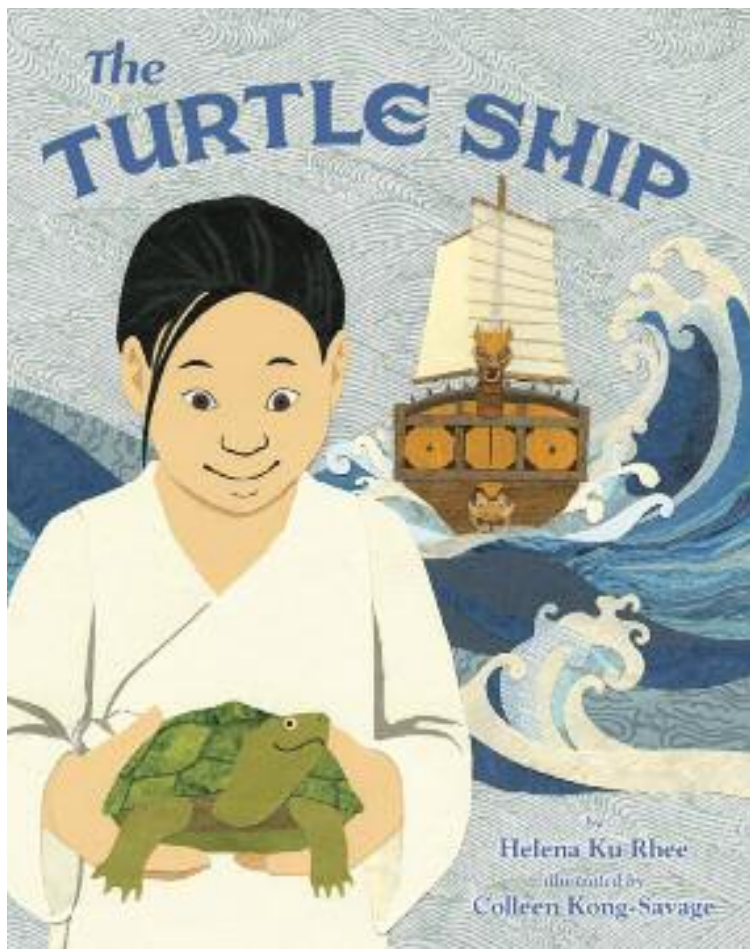
리씨의 데뷔작이기도 한 '거북선'은 16세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이

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서 그린 소설이다. 거북이와의 우정과 바다로 나가 세계를 탐험하기를 열망하는 꿈 많은 소년을 통해서 거북선이라는 대표적인 업적을 남기고 이순신 장군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다.

리씨는 이순신 장군을 미국에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를 시작했다. 리씨는 "한국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나도 미국에서 자리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이순신 장군 업적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사



한인 2세 헤레나 리씨가 영문 동화책으로는 최초로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책을 5일 출시했다



리씨의 데뷔작이기도 한 '거북선'은 16세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이순신 장군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서 그린 소설이다

람들 중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학교 도서관 저널(School Library Journal)은 '거북선'을 추천도서로 지정하며 "겉 모습만 보서는 힘에 대해 판단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잘 남겨주는 유쾌한 민화" 라고 평가했다.

출판계에 대표적인 간행물인 주간출판(Publishers' Weekly)은 "리씨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읽어 주어도 수월 할 것이며 뛰어난 그림은 바다 정경의 아름다움을 아주 잘 담았었다" 는 평가를 했다.

저자 헤레나 리씨는 LA에서 어린시절을 보냈다. 예일 영문과, UC버클리 법대를 졸업후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사를 다니다 다시 LA로 귀환해 영화 스튜디오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브루클라인 도서관 후니홀

보스톤뮤직소사이어티 챔버 음악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대학 음악박사과정 동기들 멤버로 구성된 챔버 뮤직그룹 보스톤뮤직소사이어티(BMS)가 챔버클래식 공연을 브루클라인 도서관 후니홀에서 14일 저녁 7시 30분부터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바하의 Concerto for Violin and Oboe in C minor, 라흐마니노프의 Op. 34, No.14: Vocalise: Violin, Cello and Piano, 피아졸라의 Oblivion for Violin, oboe, viola and piano 등 5 곡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연을 맡는 BMS의 바이올린은 권소영, 비올라는 한예진, 첼로는 이영숙, 피아노는최호경, 오보에는 목선영씨가 각각 맡는다. 이들은 박사과정 졸업후 미국과 한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멤버들이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공개되며 공연관련 문의는 oboemoc@gmail.com으로 할 수 있다.

장소: Brookline Village - Huneman Hall, 361 Washington Street, Brookline, MA 02445
시간: 2018.6.14, 7:30 PM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산악회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산악회가 정기산행을 6월 16일 토요일에 떠난다. 뉴햄프셔 소재 마운틴 피어스와 아이젠하워롭(Mt. Pierce - Mt. Eisenhower Loop)으로 떠나는 이번 산행의 거리는 7.6마일이다. 난이도는 4.0이며, 산행시간은 약 6시간 가량이다.

산행 당일 준비물은 배낭, 등산화 착용, 방풍의, 우의, 장갑, 모자, 스틱

, 식수 및 간편중식이다. 봄철 산행인 관계로 벌레퇴치제(Deep wood spray)를 지참해야 한다.

집결지는 93번도로 뉴햄프셔 2번 출구 팍앤라이드(PARK&RIDE)이며 오전 8시까지 모여야 한다. 회비는 20불이다. 신청은 14일 마감이며 978-569-3256 (김상호)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s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다수 재외공관,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부적절

6개 공관 수감자 면담, 구금자 신상 파악 위해 21개 공관, 주재국에 수감자 명단 요청 3년간 전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애틀랜타총영사관을 포함한 6개 재외공관이 재외국민 수감자에 대해 1년 이상 방문 면담을 하지 않거나 구금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7년 말 외교관 수가 10인 미만인 소형공관으로 10년 이상 장기간사원 감사를 하지 않은 39개 재외공관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대상에 보스톤 총영사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5월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감자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구금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않은 6개 공관은 니가타총영사관, 휴스턴총영사관, 애틀랜타총영사관,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시드니총영사관, 몬트리올총영사관이었다.

니가타총영사관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관할 지역 내 28명의 재외국민 수감자 중 5명에 대해 방문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다. 휴스턴총영사관은 24명의 재외국민 수감자 중 4명에 대해 1년 이상 면담하지 않았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30명의 수감자 중 7명은 1년이 넘어서 방문면담을 실시했고, 8명에 대해서는 1년이 경과하고 감사당일까지 면담하지 않았다.

특히 캐나다에서 성매매 조직 주모자로 몰려 2015년 4월 1일부터 32개월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전대근 목사 사건과 관련, 캐나다 정부가 영문 실명을 공개했고 실명 신문보도도 있었지만

몬트리올총영사관은 캐나다 정부의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약 6개월 간 사건의 경위 및 수감 취치 등 신상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첫 영사 접견을 한 것은 2015년 10월 4일 전 목사 측이 요청해 이뤄졌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수감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위해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지침」 및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에 따라 각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수감자 보호지침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담당영사로 하여금 수감자가 영사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수감 중인 재외국민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감자 보호지침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체포·구금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재외국민, 관계당국 등과의 접촉해 신원과 사유를 파악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수감자 보호지침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분기별로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명단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행정당국에 수감자 명단을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은 공관은 총 21개에 달했다. 분기마다 수감자 명단 요청을 하지 않았던 공관은 35개였다.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에 개최된 26차 평의원 회의에서 지부장들이 공로패를 받는 모습

서울대 동창회 평의원 회의, 보스톤에서 개막

2018년 6월 15일(금) ~ 17일(일), 내틱 크라운플라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보스톤 근교 내틱소재 크라운 플라자 호텔 (Crowne Plaza Boston-Natick)에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다.

제27차 평의원 회의는 15일 한반도 전문가 이채진 클레몬트메키나 칼리지(Claremont McKenna College) 교수의 강연으로 행사의 막을 연다. 이교수는 '한반도 통일은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진단한다.

두번째 강연자는 현 대한민국 국방부 서기관 김경욱동문으로 '북핵의 위협과 한미동맹 방어체제'를 강연한다.

두번째 날인 16일에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평의원 회의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진행된다. 평의원 회의에서는 미주 동창회가 지난 1년간 집행한 사업 보고, 재

정 보고, 그리고 다음 해 사업 계획 등을 발표하고, 동창회가 당면한 모든 주제에 대해 토의한다.

16일 토요일 저녁에 열리는 평의원 환영 만찬에서는 주중광 조지아대 약대 교수가 'The Big Picture (Future of the USA)'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서울대 음대 대학원 국악과 학생들의 축하 국악 공연이 이어진다.

매해 5, 6월경 미주동창회 회장이 결정하는 장소에서 열리는 평의원 회의는 미 전지역 26곳(캐나다 미포함)의 지역동창회 선출 평의원, 당연직 평의원, 종신이사 등이 참가한다.

'선출 평의원'은 각 지부의 동문수를 고려해 평의원 회의가 책정한 인원 수만큼 해당 지부가 선정한 평의원을 말한다. '당연직 평의원'에는 전·현·차기회장, 후원회부회장, 회보편집장, 상임고문, 집행부임

원 및 전사무총장, 감사, 분과위원장, 단과대 미주동창회장 등이 포함된다. 모든 '종신이사'는 평의원 자격을 갖는다.

지난 제26차 평의원 회의에는 미주 9개 지부에서 선출 평의원 46명, 당연직 14명, 종신이사 8명 등 모두 68명의 평의원이 참가했다.

윤상래 회장은 "유서 깊은 도시 보스톤에서 열리는 제27차 평의원 회의에 참여해 주시는 각 지부 평의원님과 동문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라고 말하고 "동문 개개인에게서 더 큰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하고, 이번 평의원 회의에 보스톤 지역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백년대계를 의논하고 전 지역에서 참석하시는 동문과 돈독한 교제도 나누고 26개 지부가 단합과 소통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연도 넓히자." 라고 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정리 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781.712.1706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6월에 방문하면 좋을 뉴잉글랜드 도시 5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날씨가 좋은 뉴잉글랜드 만큼 매력적인 여행 장소는 없다. 온화한 날씨와 더불어 열리는 다채로운 축제는 여행에 이색적인 볼거리와 먹거리까지 제공해준다. 재즈 축제, 딸기 축제와 같이 친숙한 이벤트가 열리는가 하면 강위에 불을 붙이는 설치예술, 죽은 물고기 들고 뛰기와 같은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기도 한다. 각양각색의 축제가 열리는 인근 도시로의 여름 휴가를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 보스톤닷컴(boston.com)이 소개한 6월에 방문하면 좋을 뉴잉글랜드 도시는 다음과 같다.

톱스필드(Topsfield, MA): 스트로베리 쇼트 케익 먹기

그림같이 아름다운 톱스필드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매년 이맘때 썸 딸기 축제를 벌여왔다. 올해 50번째를 맞이하는 톱스필드 딸기 축제는 9일 열릴 예정으로 보석, 옷, 예술을 포함한 60여명의 장인의 작품을 판매하는 시장이 열린다. 잘익은 신선한 딸기를 한웅큼 먹고 크림에 찍어 먹고, 쇼트케이크로 즐기는 등, 하루 종일 각종 방법으로 딸기를 먹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톱스필드에서 44년간 교회를 섬기던 목사 파슨 카펜의 집(Parson Capen House)은 이곳의 또다른 명물이다. 17세기에



지어진 건물로 엘리자베스 시대 건축물을 감상할 수 있다. 입장료와 주차는 무료이다.

topsfeldhistory.org

프로비던스(Providence, RI): 강 위에서 타는 불 감상하기

빨간 불길기 피어오르는 강. 이는 쇠구가 아니라 실제 프로비던스에서 이루어질 유명한 공공 설치예술이다. 6월 중 이틀간 설치될 예정이며 구역 설치는 10일, 전체 설치는 30일 이니 이 두 날 중 하루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 불이 타오르는 동안 관람객들은 산책을 하며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물 위에서 불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곤돌라를 예약해야 한다. 무료 입장이나 기부금을 받고 있다.

waterfire.org

벌링턴(Burlington, VT): 모든 종류의 재즈 감상하기

버몬트의 벌링턴에서는 디스커버 재즈 페스티벌(Discover Jazz Festival)이 열린다.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 축제에서는 4개의 야외무대와 20개의 연주장소에서 다채로운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무료 재즈 영화 상영과 아티스트 만나기 이벤트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discoverjazz.com



프로비던스(Providence, RI): 강 위에서 타는 불 감상하기

프로빈스타운(Provincetown, MA): 포르투갈 음식 맛보기

21일부터 24일까지 프로빈스타운의 포르투갈 문화 유산을 기념하는 포르투갈 축제(Provincetown Portuguese Festival)가 열린다. 포르투갈식 스프 테이스팅에 참여하거나 푸드코트에서 식료품을 쇼핑하고, 포르투갈 광장 근처에 있는 랍스터 베이크를 둘러보자.



가정식이 궁금하다면 모타 필드(Motta Field)를 추천한다. 24일에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가 드려진 후에 제 70회 연례 축복을 위한 행렬이 맥밀란 부두(MacMillan Pier)를 따라 있을 예정이다. 포르투갈 광장에서는 라이브 음악과 춤, 얼굴 페인팅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가 다채롭게 열리며 대부분이 무료로 진행된다.

provincetownportuguesefestival.com

부스베이 하버(Boothbay Harbor, ME): 죽은 물고기 들고 뛰기

죽은 물고기를 들고 뛰는 경주와 같은 이색적인 바닷가 마을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부스베이 하버에서 열리는 56번째 윈드저머 데이(Windjammer Days)를 방문해보자.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랍스터 먹기 대회, 엔틱 보트 퍼레이드, 파머스 마켓,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이벤트와 라이브 음악이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드론이 촬영하는 보트 영상은 고래 공원(Whale Park)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제공된다. 대부분의 이벤트는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boothbayharborwindjammerdays.org
sun@bostonkorea.com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동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KTBC /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유아방송 / CBS(가복방송) / ETN / 버라이어티 / KTV / 우리방송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유아)
장국보다 더 정감있는 전통 장독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침하겐!

- 품격을 더하는 하얀도 천주막
- 장미의 마음으로 만든 기차기 케이크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대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국내외 인기인사와 함께, 곁가
- 품성있는 상차림 세트

문의 617,249,3131 Happydolsang@gmail.com

shalom 치과

SHALOM DENTISTRY

일반진료 응급치료

보험: Delta, BCBS, MetLife, Cigna, Aetna, Guardian, Altus Dental

영업 시간
화: 오전 8시-오후 5시
수: 오전 8시-오후 6시
목: 오전 8시-오후 5시
금: 오전 8시-오후 12시

원장: 김진구

978.263.4592 www.shalomdentistry.com
smile@shalomdentistry.com

418 MASSACHUSETTS AVE. ACTON, MA 01720

보스톤 짜라시 토크 16



이거 실화냐?

보스톤 생활속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 중 기사로 담기에는 어려운 것들을 대담형식으로 풀어 냅니다. 따라서 대개 익명을 쓰며 혹은 실명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으니 감안하시고 적절히 판단해 주십시오. 혹 제보하실 독자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editor@bostonkorea.com 에 제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집자 주)

신분 불안하면 국경 100마일 근처는 피해야
 기자 3= 지난해 뉴햄프셔 화이트마운틴 인근에서 국경순찰대가 이민 검문을 했다는 헤드라인을 보도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한 결과 뉴햄프셔 뿐만 아니라 버몬트, 메인 등 국경 근처로 여행하는 것은 아주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최근 버몬트에 구금된 한 한국인으로 인해 버몬트를 직접 방문 보석금 2-3천불 가량을 지불하고 보석방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근처뿐만 아니라 이민경찰이 공항에도 많으니 비자신분 변경을 추진중인 분들은 피치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자 1= 국외 여행시 여권 만기일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된 여권인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국외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도 긴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7월 텍사스 유학생의 이야기이지만 이분들이 멕시코 칸쿤으로 여행을 갔다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국경에서 바로 한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이분들이 WIC으로 추정되는 식품쿠폰 정부보조를 받은 적 있는데 정부보조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외국 관광지 여행을 갈 수 있는지는 국경순찰대의 지적이었던입니다. 결국 미국의 모든 짐은 친구들이 싸서 한국으로 부쳤으며 앞으로 3년간 미국 방문을 불허한다는 것입니다.

기자 2= WIC과 푸드 스탬프, 오바마케어 등은 이민국이 분명 신분변경시 피해를 주지 않

는다고 했는데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 후 이를 뒤집어 버리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과거 행정부에서는 부처간 개인정보 공유를 안했는데 공항에서 WIC 같은 서비스 받은 것을 세관 및 국경순찰이 알았다면 정보가 공유되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님 이와 관련된 증거서류를 국경순찰대가 유학생분들을 수색하면서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갑질 전면 수사에 뒷전 밀린 대한항공 보스톤 직항

기자 1= 요즘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행수사, 관세 기피 수사,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거셉니다.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갑질이 도를 넘어 국민정서법을 건드린 까닭으로 보입니다. 조양호 총수일가는 이 같은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영 뒷선으로 몰려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어찌보면 온몸으로 각종 조사 수사에 저항하는 듯이 보입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게 될 모양입니다만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불행이 대한항공 보스톤 취항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보



아마존이 최근 프라임회원 가격을 \$119로 올렸다

스톤 취항 의사결정을 내릴 심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 2= 휴스턴 취항을 폐쇄할 때부터 보스톤 취항 소문이 돌았는데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 1=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각도의 정보를 통해 대한항공의 보스톤 직항 취항 관련 이야기들이 접수됐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 임원, 주정부 관계자 등 여러 경로로 긍정적인 검토중이다 올해 10월 정도 진출한다 등의 긍정 전망을 확인했습니다만 조원민 대한항공 전무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나든지 총수일가가 퇴진하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든지 해야 가부간 결론이 날 듯 보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엇갈린 시각

기자 1= 최근 트위터에서는 흥미로운 제프 베조스의 트윗이 화제가 됐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매일 읽는다는 랄프 에머슨의 에세이 구절입니다 "자주 웃고 많이 웃기, 지적인 사람의 존경과 아이들의 사랑을 얻기, 정직한 비판자들의 감탄 얻어내기 와 거짓 친구의 배신 견뎌내기(중략) 내가 삶으로 인해 단 한 사람이라도 숨쉬기 편해졌다는 것을 알기. 이것이 성공이다." 이 포스트에는 상당수 비판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표적 댓글은 아마존이 세금 문제로 7000명의 고용을 중단했는데 이 세금은 홈리스를 위해 쓰일 것이

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댓글은 아마존이 없었다면 시애틀은 디트로이트가 됐을 것이라며 고마워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기자 2= CNN 모니는 얼마전 아마존 전직원의 급여 평균을 산출해보니 평균이 2만 8천여 불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초만에 평균 임금을 벌어들이는 베조스가 대부분의 직원을 푸드스탬프, 메이크이드, 퍼블릭 하우스 등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기자 3= 아마 물류센터 직원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조금 과다한 것은 사실이네요. 하지만 CNN모니가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물류 직원에게 고액을 줄 수 없지않느냐는 것입니다.

기자 1= 아마존이 최근 프라임회원 가격을 \$119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일부는 불평하지만 JP 모건은 프라임멤버십 가격이 \$785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홉프즈 10%할인, 2일 배송, 당일배송 그리고 음악과 비디오 서비스를 합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지만 아무튼 아마존의 세상입니다.

협찬사 : 루이 루이



louloui.com 617.208.8133

로웰지역 유일 한인 치과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좋은 치과, 좋은 치아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보톡스 시술합니다”

보톡스 무료 상담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메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히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o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서 51개 접수

대마초 관리 위원회 신청서 검토 중 라이선스 발급까지 몇 주 더 걸릴 듯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유희용 마리화나 판매를 위한 라이선스 신청서가 이미 50개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사추세츠 대마초 관리 위원회는 현재 신청서를 검토 중이며 라이선스 발급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업용으로 판매될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대마초 관리 위원회에서 발급한다. 현재 28개 사업체에서 51개의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대마초 관리 위원회는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서 검토를 이미 시작했지만, 신원 조회와 지방 정부와의 협력 과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발급까지는 최소한 수 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는 오는 7월 1일부터 마리화나 판매점이 문을 열 수 있지만 라이선스가 그 전에 발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스티븐 오프먼 대마초 관리 위원회 의장은 “우리는 예정대로 진행

하고 있다. 신청서를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다만 라이선스 발급 과정의 상당 부분이 다른 기관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가령 신원 조회나 마리화나 판매 허가 여부에 대한 지방 정부의 답변 등을 받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밝혔다.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서는 4개

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목적, 신원 조회, 경영진 및 운영 개요, 그리고 신청서 납부다. 4개의 패키지 중 적어도 1개 이상의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체는 108곳이지만, 4개의 패키지 모두가 접수된 신청서는 51개다. 대마초 관리 위원회가 라이선스 발급을 허용하면 추가로 라이선스 발급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마리화나 라이선스 신청서는 매사추세츠 주 곳곳에서 두루 접수되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우스터 카운티로 16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jsi@bostonkorea.com



28개 사업체에서 51개의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MBTA 심야 버스 운행 계획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MBTA가 심야 버스 운행을 올해 가을부터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다. MBTA의 기본 방침은 늦은 시간까지 유희를 즐기는 사람 위해 버스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버스 운행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MBTA 재정 관리 위원회는 지난 4월 12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집행 계획을 승인했다. 120만 달러 승인 내역에는 일부 버스 구간에 대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운행을 연장하는 방안과 일부

승객이 많은 노선에 추가 버스를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심야에 운행되는 노선은 보스톤 다운타운보다는 보스톤 근교의 외곽 지역으로 운행되는 버스 노선이다. 계획대로 시행되면 올해 가을부터 주당 282개의 버스 운행이 추가된다.

MBTA는 기존에 심야 버스 운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2번 있다. 그러나 스테파니 펠렉 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jsi@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피자,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서울 떡볶이

(구 비빔)



김밥, 라면, 떡볶이가 생각날때!

한국식 정통 분식전문점

한국 분식점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김밥, 떡볶이, 돈까스, 치킨, 순대, 찰면, 비빔밥 등 50여가지의 분식전문점 메뉴)








617.787.5656

SEOUL TOPOKKI

166 Harvard Ave. Allston MA.02134

RMV에서 3시간 30분 기다리며 분통

4시간 이상 기다리거나 헛걸음할 수도 제일 좋은 방법은 AAA에서 면허 갱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차량등록국(Registry of Motor Vehicles)에서 올해 3월부터 리얼 아이디를 발급하면서 대기 시간이 대폭 길어진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6일자 보스톤 글로브에는 운전 면허증 갱신을 위해 RMV를 방문한 보스톤 글로브 기자의 체험담이 실려 눈길을 끌었다.

지난 4일이 생일이자 기존 운전 면허증 만료일이었던 글로브 기자는 브레인트리 RMV를 방문했다. 결과적으로 운전 면허증 갱신을 위해 3시간 30분을 RMV에서 보내야 했던 글로브 기자는 뜻하지 않은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어떤

이들은 4시간 이상을 RMV에서 허비하고, 심지어는 준비한 서류가 불충분하여 소득 없이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글로브 기자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RMV 직원들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해외 출생 신고서나 W-2 같은 세금 관련 서류도 검토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는 질문에 한결 같이 “그런 질문은 물어보려고 하지 마” 라는 식의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MV를 방문한 사람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가거나,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데 얼

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다는 것이다. 글로브 기자는 RMV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결국 당일에 잡혀 있던 물리 치료 약속을 취소했다.

글로브 기자는 트리플 에이(AAA) 회원이라면 지정된 트리플 에이 지점을 방문해 운전 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RMV가 지정한 매사추세츠 주 내에 34개 트리플 에이 지점에서는 운전 면허증 갱신을 포함해 RMV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이다.

또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매달 1일과 말일, 학교가 방학을 하는 주간, 휴일이 끼어 있는 주에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피해 RMV를 방문할 것을 조언했다.

jsi@bostonkorea.com



RMV 보스톤 지점에서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베이커 주지사 바이오테크 지원 재확인

향후 5년간 바이오에 5억달러 지속적 지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바이오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로 했던 주정부 지원을 5일 재확인 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보스톤 시포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바이오국제컨벤션 연설에서 지난 10년간 6억5천만달러의 정부투자가 바이오업계를 활성화시켜 43억 달러의 경제활동을 창출했으며 향후 5년간 5억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약속했다.

이번 정부 투자는 자본프로젝트, 세금크레딧 등을 포함한 투자가 될 것이며 주 정부기관인 매사추세츠생명공학센터(MLSC)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다. 주지사의 투자 제안은 매사추세츠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하다.

주지사는 “법안이 이미 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금은 인력개발에 집중되며 이런 곳에 정부투자가 정확히 이뤄져야 하는 것” 이라 밝혔다.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목요일까지 법안을 표결해 주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주지사는 약 23개 생명공학기업에게 2천만불의 세금 크레딧을 인센티브로 제공했으며 이로 인해 회사들은 1,100명의 새로운 일



6월 5일 보스톤 바이오 컨벤션에서 발표하고 있는 한 연사

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보스톤을 바이오 허브로 만들기 위한 최초 투자 계획은 2007년 민주당 주지사였던 드벌 패트릭에 의해 시작됐다. 드벌 패트릭 주지사는 2007년에도 보스톤에서 열린 바이오국제컨벤션에 연사로 참여해 세금감면, 정부대출, 그랜트 등의 형태로 10년 10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 투자계획법안은 의회가 승인했으며 2008년부터 집행됐었다.

당초 베이커 주지사는 생명공학투자계획에 큰 뜻을 두지 않았으나 지난해 드벌 패트릭과 유사한 규모의 지원안을 발표해 바이오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베이커 주지사는 이 계획을 지난해 샌디에이고 컨벤션에 참여해 발표했었다.

2018년 보스톤 바이오국제컨벤션에는 74개국에서 17000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보스톤은 2012년에 이어 6년만에 컨벤션을 개최했다.

hsb@bostonkorea.com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북미회담 주역' 폼페이오, 민주당도 신뢰하는 키맨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만든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 미국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꼽힌다.

북·미 양측 지도자들의 결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 못지않게 폼페이오 장관의 그림자 외교가 '적대국' 간의 이견을 성공적으로 조율해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신임 아래 현재 미 정부 대북 정책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키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서 중앙정보국(CIA) 국장 재임 시절 '코리아미션센터'(KMC) 신설을 통해 대북정보 수집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그는 올 3월말 이후 2차례에 걸쳐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그의 '오른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는 최소 3차례 회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전격 취소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휴지 조각이 될 뻔도 했지만,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은 물밑접촉을 통해 양측 대화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체제안전 보장'이란 일관된 메시지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C) 보좌관을 위시한 정부 내 강경파들을 뒤로 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일에 매진했다.

물론 '본게임'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번 회담이 북한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보다 첫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상견례'가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회담에 대해 "과정의 시작"이라며 후속 회담이 열릴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회담 결과와는 별개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전임 렉스 틸러슨을 뛰어넘는 대북 외교성과를 냈다는 평 또한 듣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10일 평양에서 김 위원장을 만난 뒤 북한에 억류돼 있던 한국계 미국인 3명과 함께 귀환하면서 모처럼 북미관계에도 훈풍이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폼페이오가 외교수장이 되면서 국무부의 위상 또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모든 행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구상 안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시종일관 대통령과 마찰을 일으켰던 틸러슨과는 다른 점이다.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 의견을 관철하기 수월했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국제전략연구소(IISS) 소속 마크 피츠제트릭 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은 실질적 내용보다 외교관이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 회담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뛰어난 '쇼맨십'도 그가 여론의 호평을 받는 이유가운데 하나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31일 북한 김 부위원장이 뉴욕을 방문했을 때 맨해튼 미드타운 마천루가 훤히 보이는 고층 아파트의 유엔 주재 차석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부와 자유'를 상징하는 뉴욕 시내 풍경을 뒤로 하고 북·미 양측의 고위 인사가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는 이 장면은 '북한의 핵 포기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란 미국 측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장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의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미 의회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체로 신뢰하는 분위기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했던 그 어떤 회담보다 폼페이오 장관이 있는 이번 회담에 훨씬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적 소통이 가능하고 동시에 외교 전략까지 추진하는 폼페이오 장관의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yjw@news1.kr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커들로, 미·중 아직 ZTE 사태 합의점 못 찾아

무역협상 지지부진하면서 ZTE 논의도 원점으로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아직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흥통신)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조건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ZTE 사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금까지는 양국이 아직 (ZTE 관련)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ZTE는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인 북한·이란에 미국 상품과 기술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미국 상무부로부터 제재를 받아 7년간 미국 업체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됐다. 퀄컴 등 핵심 부품 공급사와 거래가 끊긴 ZTE는

영업활동을 정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상무부가 ZTE에 13억달러(1조4000억원) 수준의 벌금을 요구했으며, 미국인 준법감시인인 고용과 경영진 교체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거두는데 합의했다고 보도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트위터를 통해 "ZTE가 이사회와 경영 방식을 교체하고 13억달러의 벌금을 내는 대가로 미국산 부품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합의를 시사했지만, 최근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ZTE 사안에 대한 논의도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pasta@news1.kr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마음대로 골라본다
\$14.99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케이블 \$24.99
VIP 상품 방송 3사 / 중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4.99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형제 떡집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라이언 하원의장, 트럼프 셀프사면 안될 일

(서울=뉴스1) 강민경, 이창규 기자 = 미국 공화당 내 1인자로 꼽히는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회의장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이언 의장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셀프 사면의) 합법 여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위터에 "수많은 법학자들이 말했듯이, 나는 나 자신도 사면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가 잘못된 게 없다면 왜 그렇게 하겠느냐"는 글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그의 '셀프 사면권'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 본인이 이 단어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로버트 무러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pasta@news1.kr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

미국, 중 ZTE 제재해제 합의 벌금 10억달러

에스크로에 4억달러 보관, 추가 위반시 몰수 30일 이내 경영진·이사회 교체 조건도 포함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미국 상무부가 7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흥통신)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ZTE 측과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월버 로스 상무장관이 린으로 성명을 내어 ZTE와 미국 기업 간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ZTE는 미 정부에 10억달러(약 1조700억원)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4억달러(약 4270억원)를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기로 했다.

합의에는 또 ZTE의 이사회와 경영진을 30일 이내로 교체하고, 10년 안에 ZTE가 규제를 위반할

경우 미국 정부가 다시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스 장관은 성명서에서 "ZTE의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약 추가적인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에스크로에 있는 4억달러는 모두 징수된다"고 밝혔다.

중국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대상인 북한·이란에 미국 물자와 기술을 불법 수출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미국 당국에 제재를 당했다.

퀄컴 등 미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ZTE는 사실상 영업 정지 상태로 지내왔다.

wonjun44@news1.kr

백악관, 북미회담은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오는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담을 주최하는 싱가포르의 환대에 감사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샌더스 대변인은 "북미 회담이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펠라 호텔은 지난달 28일부터 조셉 헤이긴 미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이 이끄는 미국 측 정상회담 실무 협의팀이 숙소로 사용했던 곳이다.

싱가포르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샹그릴라 호텔 주변과 센토사섬 일대를 '특별행사지역'(special event area)로 지정해 샹그릴라 호텔이나 센토사섬 일대가 각각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또는 정상들의 숙소로 이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싱가포르 정부는 경찰들이 주민들과 개인 소지품들을 엄격하게 검사할 것이며 장내 방송 설비나 원격

조종 항공기 시스템 같은 것들은 이 지역 내에서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 전경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원
주택융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mlee@mbamortgageco.com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점심 뷔페 시작!
월-토: 11:30~2:30
일, 공휴일: 12:00~3:00

불판

바베큐&라운지

차가운 가을밤, 친구가 그리웁니다.
친구와 한잔, 불판



영업 시간
주 7일 오픈. 금,토 : 밤 11시까지

소주, 칵테일 및 다양한 주류
가라오케 및 각종 연회시설 완비

BULPAN RESTAURANT
Korean BBQ, Hibachi, Sushi & Chinese
781.863.2800
27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김명수 대법원장, 여러 의견 차이 당연, 소홀함 없이 결론

모두 법원 현재 · 미래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7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처리 방안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 일부 의견이 갈리는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입장에 따라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들어서며 '고등법원 부장판사회의나 사법발전위원회에서 다소 다른 견해가 나왔는데, 어떻게 조율할 생각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모든 의견들이 우리 법원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며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제가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외부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취합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각계의 의견을 얻으려고 노력하

고 있다는 것만 말하겠다"고 답했다.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시점도 그때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각급 법원은 지난 1일부터 판사회의를 통해 법관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을 검찰 수사에 맡겨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진상규명과 신뢰회복을 위해 수사 dosool@news1.kr

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고참급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청사 내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401개중 98 문건속 '민낯', 원세훈 · 정치인 '재판 거래' 강력 암시

BH, 원세훈 · 여야 정치인 재판에 관심, 점점모색 가능성 박근혜정부 뒷받침, KTX · 통상임금 · 이석기 · 전교조 등 자평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사법연수원 27기)이 검찰에 추가 고발된다.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15명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원내 1석의 군소 정당이다.

고발장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현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57·17기),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18기), 이진만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18기) 등 15명이 피고 발인으로 적혔다.

김 후보는 "지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결과 보고서와 첨부자료, 별지에서 양 전 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대법원은 박근혜정권 '사법농단 적폐세력'인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셀프개혁을 하겠다며 제식구 감싸기를 한다.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검찰 고발로라도 사법정의를 세울 외부동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

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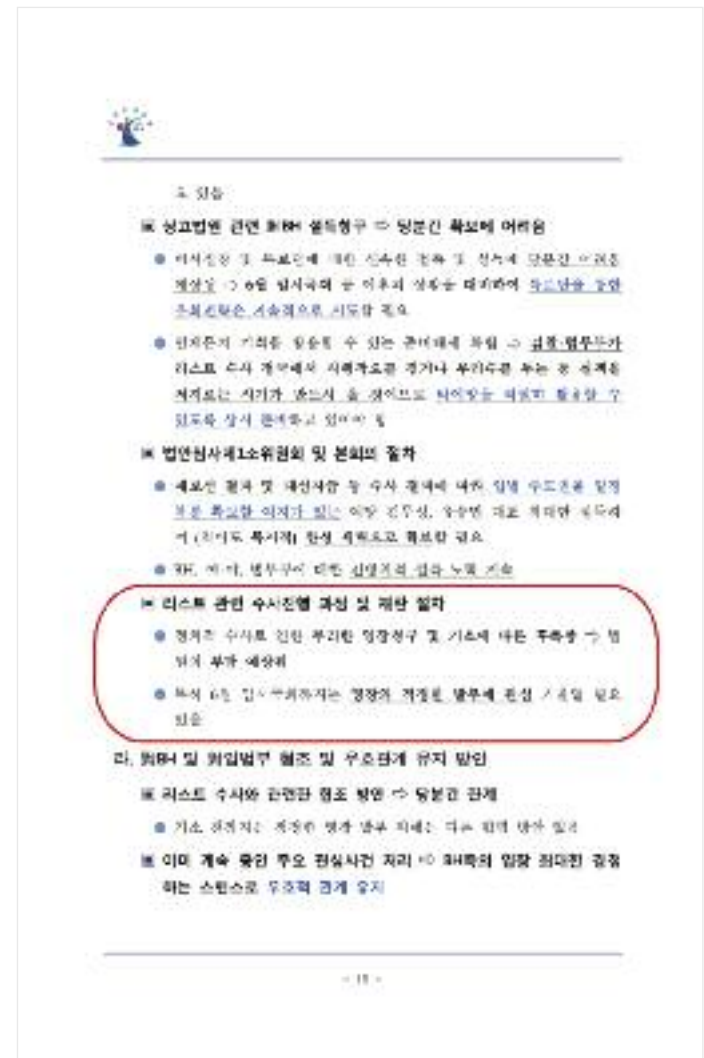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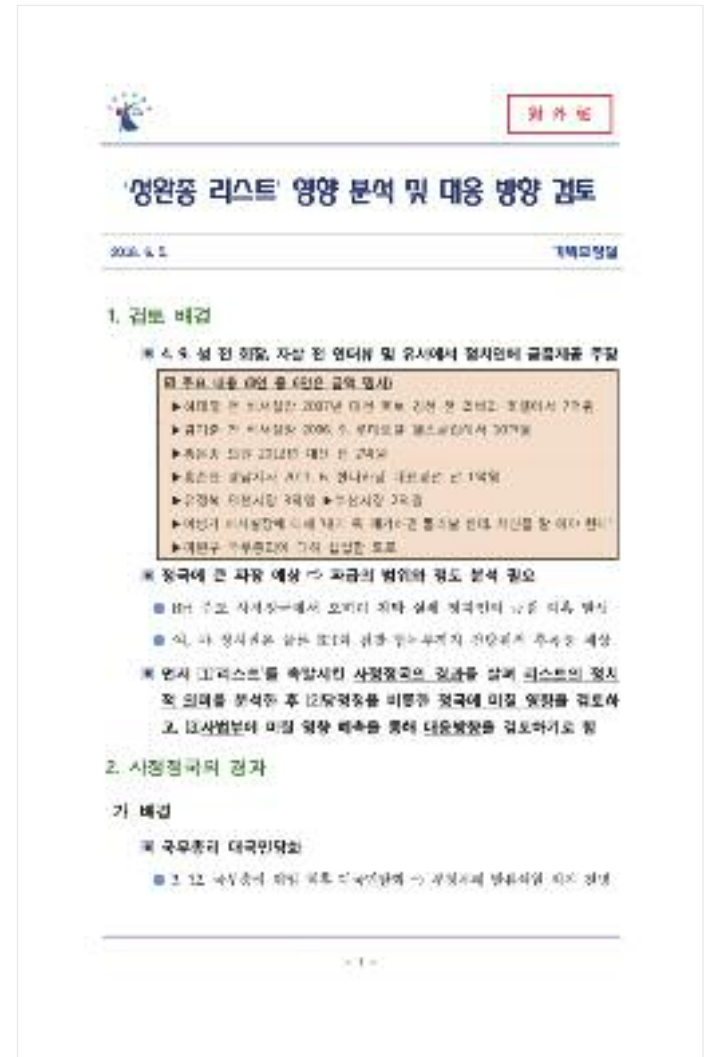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고발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몰아서 배당해놓고 특조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특조단 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필요 시 검찰 고발'을 시사한 만큼 검찰은 대법원 수뇌부 등의 입장을 확인한 뒤 본격 수사착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smith@news1.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문건 98건 중 성완중리스트 영향 분석 문서 일부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JUNE 8 - JUNE 14, 2018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JAPANESE STEAMED EGG 'CHAWANMUSHI' AN OMELET THAT'S SO MUCH TASTIER, IT'S STEAMED EGG THAT MELTS IN YOUR MOUTH. EVERY BITE IS PACKED WITH UMAMI!

H마트와 함께 부드럽게 입안에서 살살 녹는 푸딩과 같은 계란찜을 만들어보세요!

Share it @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hmartusa Follow us @hmartusa



<p>FRIDAY/SUN ONLY 8/9/10 ONLY</p> <p>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p> <p>\$17.99 box</p>	<p>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선골드키위</p> <p>\$22.99 box</p>	<p>Korean Melon 참외</p> <p>\$1.99 lb.</p>	<p>Oriental Sweet Potato Medium 고구마 미디엄</p> <p>\$1.49 lb.</p>	<p>Kabocha 단호박</p> <p>\$0.88 lb.</p>
<p>Washington Fuji Apple Premium 워싱턴 후지사과 프리미엄</p> <p>\$1.49 lb.</p>	<p>Lotus Root 연근</p> <p>\$1.68 lb.</p>	<p>White Peach 백도</p> <p>\$2.49 lb.</p>	<p>Gobo 우엉</p> <p>\$1.99 lb.</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All Varieties 14-16oz/pkg</p> <p>\$0.99 pkg</p>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Beef Chuck Eye Roll Steak 육등심 스테이크</p> <p>\$7.99 lb.</p>	<p>Chicken Tenderloin 닭연심</p> <p>\$2.99 lb.</p>
<p>Boneless Pork Loin Chop 통심복합</p> <p>\$4.99 lb.</p>	<p>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2cm 냉동 차돌박이</p> <p>\$9.99 lb.</p>
<p>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 냉동 돼지불고기</p> <p>\$5.99 lb.</p>	<p>Marinated Sliced Beef Ribeye Bulgog 양념 소불고기</p> <p>\$6.99 lb.</p>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Head-on Patagonian Pink Shrimp 머리있는 자연산 홍사우</p> <p>\$5.99 lb.</p>	<p>Frozen Abalone 냉동 전복</p> <p>\$19.99 lb.</p>
<p>Golden Pompano 금병어 500-800g</p> <p>\$2.99 lb.</p>	<p>Head-on Shrimp 머리사우 30-40%</p> <p>\$5.99 lb.</p>
<p>TONGTONGBAY Cooked Mussel Meat 통통배 칠레산 홍합살</p> <p>\$2.99 lb.</p>	<p>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p> <p>\$7.99 lb.</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TAMAKI Gold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Rice 타다익 골드 쌀 15 lbs</p> <p>\$25.99</p>	<p>GWANGHUN Green Tea Scented Sat 강원 녹차 도시락김 + 김치용 세트 0.17oz x 10ea/pkg - Marsh container</p> <p>\$12.99</p>
<p>HONGSHIM 농심 신라면 Shin Ramyun Noodle Soup 4.2oz x 15ea/box</p> <p>\$9.99</p>	<p>CJ Cooked White Rice CJ 찰떡 밥 팩스 7.4oz x 12ea/box</p> <p>\$12.99</p>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제 5회 Hmart & NY Radio Korea & The China Press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가 우천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사전등록 접수자 및 가족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며, 그림대회는 **6월 23일 (토) 오전 11시** 에 개최됩니다. 공식 안내문은 접수하신 이메일을 통해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Hmart Customer Service: customer_care@hmart.com
Tel: 877.427.7386 (M-F 8AM-6PM)

<p>NISHI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모토 세카 쌀 15 lbs</p> <p>\$9.99</p>	<p>CHUNGJONGNE Sunchang Soy Bean Paste 청경일 순장 제래식 된장 500g</p> <p>\$7.99 6.17 lbs</p>	<p>KADUYA Pure Sesame Oil 가드마 알가름 500cc</p> <p>\$14.99</p>	<p>GOMPYE Wheat Flour 곰피예 밀가루 5.5 lbs</p> <p>\$3.99</p>	<p>HANDREUM Red Pepper Powder Coarse 해운통 굵은 고춧가루 4 lbs</p> <p>\$9.99</p>
<p>DONGJON Lunchbox Meat 동원 런치박스 12ea</p> <p>2\$5</p>	<p>FOODCELL Vermicelli 푸드셀 푸드셀 국수 1.5 lbs</p> <p>2\$5</p>	<p>BEKSUI Korean Frying Mix/Pancake Mix 백수이 튀김가루/부침가루 2.2 lbs</p> <p>\$2.49</p>	<p>HANDREUM Dumpling 해운통 만두 2.65 lbs</p> <p>\$4.99</p>	<p>HATAI Nougat Ice Bar 해태 누가바 7oz x 8ea/pkg</p> <p>\$4.99</p>

Father's Day Special

<p>HANDREUM Banana Flavored Milk Drink 해운통 바나나우유 6.7oz x 6ea/pkg</p> <p>\$3.99</p>	<p>IDEN Drink 이덴 드링크 18 varieties 9.7 5oz/oz</p> <p>\$3.99</p>	<p>Footbath Bucket 족욕기 Green/White - ea</p> <p>\$9.99</p>	<p>KHAUS Snailso Massage Cushion 쿠하우스 시아우 마사지 쿠션 1.589.99</p> <p>\$72.99</p>	<p>KHAUS Snailso Massage Cushion 쿠하우스 시아우 마사지 쿠션 1.589.99</p> <p>\$69.99</p>
--	--	---	--	--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omissions, 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021) 877-4273
H-MART BURLINGTON STORE: 15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43 / STORE: 40345 Sat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우상호, 한나라당 매크로 의혹, '드루킹 특검'에 포함해야

여론 조작 달인들 차 청와대에 발탁 차캠프 실세 이정현도 알았을 것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금 하고 있는 (드루킹) 특검에다가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고 밝혔다.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캠프 공보단장을 맡았던 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드루킹 특검은

)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특검법을 개정해 이 사안을 특검 대상에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 의원은 "기존에 알던 것은 (18대 대선 여론조작에) 국정원 직원들이 관여한 것만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한나라당) 선대위가 조직적으로 참여했고 그 공을 세운 사람을 청와대로 발탁 인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 조작의 달인들을 청와대로 불러 올렸다는 건 두 가지 (일을

했었을 것"이라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홍보를 또 매크로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2014년 지방선거 때 또 이 팀들이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 선거 후보에 대한 여러 비방, 유병언과 관련돼 있다는 댓글들을 돌렸다고 한다"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과거에 돌리던 관련자들을 움직이는데 관여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18대 대선 당시) 기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가짜뉴스들이 너무 빨리 생성되고 너무 빨리 퍼졌다"며 "매크로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서 이렇게 (여론조작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이정현 공보단장이 캠프에서 거의 실세 아니었냐"며

"(이 전 공보단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선대위와 관련된 사실은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mile@news1.kr

맞 올린 드루킹 특검, 댓글공작 배후세력 규명여부 주목

(서울=뉴스1) 나연준, 이유지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으로 불리는 '드루킹 특검'이 마침내 출발선에 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를 '드루킹 특검'에 임명했다.

특검은 앞으로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6월말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이 과연 댓글조작을 주도한 드루킹(김모씨·49) 일당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재인정부 실세들이 어떤 관계였는지를 제대로 밝혀낼지 주목된다. 특히 드루킹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간의 유착의혹,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특검이 밝혀내야 할 과제다.

현재 댓글 조작사건으로 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는 드루킹을 비롯해 매크로를 입수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31·필명 서유기) 등 4명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다.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 야당은 김경수 전 국회의원의 역할을 특검에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대로 특검의 수사범위에서는 빠졌지만 수사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어 김 전 의원은 물론 사건과 관련된 누구라도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허 특검은 이날 임명 직후 서울 서초동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도의 정치적 사건인건 분명하데 처리 방법과 절차는 법에 의해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구성될 수사팀과 같이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허 특검이 다짐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없지 않다.

한 변호사는 "과거에도 특검을 했지만 최순실 특검, 대북송금 특검을 제외하면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면서 "정권 초기에 실시되는 특검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특검이 의지를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조사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관련사건,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하면 된다"며 "문제가 없으면 문재인정부는 탄력을 받을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현 정부의 상승세가 한번 꺾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ra@news1.kr



허익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

HUSAZOMO USA

The Volume Enhancement ふさ増毛

프리미엄 명품 증모술 후사조모

카네카 후츠라모

한가닥의 모발에 초경량 가모 4가닥을 묶어 2~3배 늘리는

프리미엄 헤어증모술

보스톤 총판, 대리점, 교육생모집

기존매장의 새로운 후사조모 증모기술 도입으로 매출증대는 물론 탈모로 고민하시는 고객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후사조모란?

- ✓ 빠지면 아까운 실는시술, 티나는 가발고민을 현방에 해결
- ✓ 단순증모술이 아닙니다. 스타일 연출까지 가능한 증모술
- ✓ 한듯 안한듯 가벼움과 리페어까지 가능!

후사조모 증모교육

미국 인사소속 에듀케이터 직접 교육

시술설계, 케팅설계, 미용설계, 모든 실습재료는 교육비용외로 제공

모든 과정 수료 후 일본 인증 디플로마 증명

시술, 총판, 대리점, 교육 문의

201-849-5130 / 201-678-8828

1550 Lemoine Ave, suite #211 Fort Lee, NJ 07024

www.husazomousa.com info@husazomousa.com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AGENT WANTED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 할 에이전트를 모십니다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Realtor
Direct: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Realtor
Direct: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Realtor
Direct: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Featured Listing

Business

세탁소 매매
Haverhill에 위치, 매상 \$150,000 세탁소 저렴한 렌트비, 24년째 운영중, 안정적인 매상
Asking \$135,000

Business

세탁소 매매
년매상 \$250,000 이상, 안정되고 물안에 좋은 자리 위치 안정된 고객층 및 발전 가능성 +
Asking \$220,000

Business

옷가게 매매
보스톤에 위치한 옷가게 매매, 인벤토리 포함, 2,000 Sq. Ft.
Asking \$150,000

Commercial

커머셜 리스
1600 Mass. Ave, Arlington, 알링턴 센터에 위치, 넓은 주차장, 1,000 s.f. 월 \$3,000 + NNN 네일, 오피스, 세탁소, 드롭오프 스토어로 적합. **월 렌트 \$3,000**

NEW LISTINGS

Commercial

건물 매매
보스톤 남쪽, 세탁소 입점된 단독건물 세탁소와 함께 구입 가능
Asking \$545,000

Business NEW

한국식당 매매
년 매상 \$1,800,000
Asking \$630,000

Commercial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Residential NEW

럭셔리 콘도 매매
1 Charles St. South Unit 812 Boston Refined luxury residence at 1 Charles, luxury full service 2Bed 2Bath condo top of the line finishes throughout, 1 Garage space, Boston Common, Newbury st 과 근접, 좋은 위치
Asking \$1,350,000

Residential NEW

단독주택 렌트
59 Marcellus Dr. Newton Newton South 학군, 6,313 s.f. 6Bed 6.5Bath 2 car garage 8월1일 입주 가능
월 렌트 \$10,000

Residential NEW

콘도 렌트
1600 Mass. Ave. Unit 203 2Bed 2Bath 1 parking space 하바드 스퀘어에서 5분거리, 편리한 교통 8월15일 입주 가능
월 렌트 \$3,5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과 인근에 위치, 드롭오프와 풀플랜트 매매 년 매상 \$320,000 + 고정된 안정적인 수입
Asking \$350,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인근에 위치 좋은 로케이션, 풀 플랜트 안정된 수입
Asking \$125,000

Business NEW

세탁소
보스톤 서쪽에 위치, 풀 플랜트 풀에 입점, 대형 주차공간 18년째 운영중
Asking \$315,000

Business

한식&일식 식당
보스톤 서쪽, Full Liquor 연매상: 1.7M, 좋은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599,000

Business

네일샵 매매
교통 좋은 위치, 숙련된 테크니션을 안정된 고객층 연매상 \$350,000 이상
Asking \$180,000

Business NEW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독점 상권 종일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Business NEW

중식당 매매
30년이상 전통 중식당, \$1,700,000 년매상 6,000+ Sq.Ft. 250 좌석 보스톤인근 좋은동네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695,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연매상 \$200,000 이상, 확보된 많은 고객과 안정된 수입
Asking \$160,000

Business

세탁소
보스톤 북부 세탁소 안정적 매출
Asking \$160,000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NEW LISTINGS



Clara Paik
617.921.6979



김형진
781.956.0409



Yousuf Masud
978.995.1049



Lisa Lee 이세영
857.294.9760



Vicky Xiao
617.480.6362



NJ Kim
617.615.7596



Just listed: Condominium
120 Parker St. - Unit 26
Acton, MA
Asking price: \$189,900
Listing Agent: Laura Rakauskas



Just Listed: Business Opportunity
Newton, MA 02461
Asking: \$100,000
Listing Agent(s): Janice Le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Town House/Condo
109 Crystal Brook Way - Unit B,
Marlborough, MA
Asking price: \$284,9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Just Listed: Single Family
16 Abbey Road - Unit 16
Sherborn, MA
Asking: \$1,299,0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Rental
16 Abbey Road - Unit 17
Sherborn, MA
Asking: \$3,750/mo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Allen Quinn
978.897.2781



David Wu
508.930.1543



제니스 리
978.806.6023



Madeline Chen
781.491.3228



Alex Chen
617.901.8458



David J. Oliveri
508.400.0809

Berkshire Hathaway HomeServices N.E. Prime Properties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1 T: 781.259.4989, F: 781.259.4959

Newton Office:

95 Union St., Newton, MA 02459 T: 617.969.4989, F: 617.969.4959

Belmont Office:

451 Common St., Belmont, MA 02478 T: 617.826.3434, F: 617.826.3446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We Are Recruiting Agents

NEW LISTINGS



Steve Son
617.290.0623



Ping Bai
617.233.4162



Victoria Tu
978.201.5615



Angela Eleazar
617.319.6657



Ken Tlagae
617.959.5500



Ayla Yildi
781.249.4872



Just listed: Single family
905C Massachusetts Ave.
Lexington, MA
Asking price: \$615,000
Listing Agent: Maria Koral



Just listed: Rental
1731 Beacon St. Unit 301
Brookline,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Rental
69 Qunit Ave. - Unit 26
Boston, MA
Asking price: \$2,1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Town House Rental
53 South Walnut St. - Unit 2
Quincy, MA
Asking price: \$2,300/mo
Listing Agent: Vicky Xiao



Just listed: Single Family
15 Meadow St.,
Dedham, MA
Asking price: \$599,900
Listing Agent: David J. Oliveri



Just listed: Single Family
3 Larch Rd.
Acton, MA
Asking price: \$535,000
Listing Agent: Clif LaPorte



Maria Koral
978.973.6043



Bill Busiek
781.820.1569



Clif LaPorte
978.424.3045



Teresa Vitelli
781.619.0473



Johanna Parlon
978.501.4753



M. Keith Peifer
304.963.2923

Find your next home
with us online at
bhhsneprime.com

등근 빛 (마지막)

아예 아무 말도 모르는 베트남 여자나 네 팔 여자들은 얼굴의 표정도 없이 자신의 일만 하면 되지만 량은 몇 가지의 단어를 알아듣고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추측한다. 중국보다 더한 이 계급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는 그 바다에서 고개도 들 수 없고 무릎을 펴서도 안되는 자본주의의 바다를 지탱하는 노예에 불과한 것이었다. 물론 유니언이나 종업원을 관리하는 곳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었다. 그들이 보호하는 종업원은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일만 하며 그들을 위해서는 간과 쓸개를 다 빼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뒷선을 이용하여 보호하고 관찰한다. 량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사회를 뚫고 지나야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슈퍼바이저는 특하면 “저 바보들.” 하며 혼잣말을 하면서 지나간다. 어떤 노인에게는 “욕심이 모가지까지 차서 늙어서까지 죽자고 일을 하는군” 한다. 어느 날은 “상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것들...” 이런 말을 알아듣고는 처참해졌다. 량은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어떻게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했는지 안다. 아니 그게 꼭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욕망을 포기할 수 없다. 자신을 위해, 자신이 자각한 대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존재 이유를 향한 물음이 그토록 나쁜 것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량은 자신보다 수백 배는 더 진화된 여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신참으로 던져진 것이다. 이곳의 매니저로 있었던 남편은 이 세계의 생태를 누구보다 잘 안다. 은행의 계좌도 만들지 못해 남편이 만들었다. 돈을 벌어도 남편이 관리

하고 량은 용돈을 타서 써야 한다. 왜 남편이 쉽게 자신이 취직을 해야겠다는 말에 동의하고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차로 태워다 주며 태우러 오는가에 대한 이유다. 남편의 친구들이 중국 여자들과 결혼했지만 모일 때 절대로 여자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민주 사회에서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40이 넘고 50이 넘은 여자들이 새로운 세계에서 다시 눈을 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자본을 떠받치고 있는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었드려서 생각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기계처럼 일을 하는 것, 이것만을 허락한 사회에 던져진 것이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는 백인 남자 한 명이 종업원들 사이를 돌며 이것저것 물어본다. 위생 검사를 하는 것이다. 남자는 량 앞에서 서서 냉장고는 몇 도 정도가 적당한지를 물었다. 량이 알아 들었다. 40도라고 말하자 영어를 알아듣는 종업원이 있다는 것이 신기한지 몇 가지를 더 묻는다. 량이 대답한다. 네 가지의 질문 중 세 가지를 대답했다. 량은 눈을 인형처럼 깜박이며 말했다. 남편이 말했다.

“넌 눈을 깜박이며 말할 때 가장 매력적 이야. 나를 꼼짝 못하게 하지.”

모든 남자들이 그럴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량은 최대한 여자 냄새를 풍기려고 노력했다. 량이 남편과 약국에 갔을 때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남편이 약을 사는 사이에 몰래 립스틱을 샀다. 꽃분홍 립스틱. 남편이 직장에 데려다주면 라커룸에 들려 옷을 갈아입는다. 모자를 쓸 때 앞 머리카락 몇 올을 빼

내 살짝 구부려 옆으로 놓는다. 그리고 립스틱을 바른다. 자신에게 상냥했던 백인 남자가 지나가길 기다린다. 보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 남자를 기다린다. 온다 해도 량에게 다시 말을 붙일 확률은 거의 없지만 량은 고양이처럼 그 남자의 주위에서 단 몇 마디라도 하고야 만다. 어느 날 량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그 남자가 다른 남자와 나누는 대화 중 몇 가지의 단어를 알아듣는다.

(여자, 중국, 말, 립스틱, 섹스, 어떻게...)

이후 량은 립스틱을 발랐을까? 안 발랐을까? 직장을 계속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중국으로 돌아갔을까? 계속 미국에서 살까? 이런 상식적 의문은 이미 그 사회에서 소용이 없다. 량에게 남자가 낚였거나 남자에게 량이 낚였거나 하는 것도 별 의미 없다. 량은 남편과 계속 잘 살아가는 길을 택했다. 그 사이 남편은 더 늙어 병이 들었지만 량은 지극 정성으로 간호했다. 은행을 가는 일은 이제 량의 몫이다. 물건을 사는 일도 량의 몫이고 남편의 약을 챙기는 일도 량의 몫이다. 남편의 어눌한 몸짓 때문에 물이 엇질러지면 량의 목소리는 상냥하다.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해요.” 라고 말하면 남편은 괜히 량을 쳐다보다가 정말 가만히 앉아 있는다. 가끔 직장의 백인 남자가 물건을 사러 갈 때 채소의 신선도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량을 데리고 나간다. 어떤 날은 집으로 오기도 들어온 종업원을 길들이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량은 그 울타리 내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한 것이다. 휴일 날이면 색색의 실을 사다 모았다. 천도 골고루 다섯 마씩 꿰어다 놓았다. 하나의 원피스를 만들 때마다

살아온 세월을 박음질한다. 원피스를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높은 구두를 신는 동안 거울 속의 풍경을 본다. 파란 하늘과 목이 긴 붓꽃들이 가득 핀 마당을...

-나를 괴롭히던 둥글둥글한 빛들은 유리 바닥 밑으로 아직도 떨어지지. 나에게는 너희들이 말하는 순수함이 없을 거라고 하겠지. 그래서 난 연극을 해. 너희들의 상식을 지켜주기 위해. 너희들의 상식은 너무 비겁하지만 적당히 존중해 줄게. 난 말이지 최대한 나를 낮추며 살아. 그게 뭐 어때서? 사람들의 진화 속도와 내 속도가 다른 것뿐이지만 난 최대한 속도를 내어 살려고 해. 바닥으로 떨어지는 빛 속에 앉아 이제는 머리를 빗을 수도 있어. 그리고 어린 계집아이에게 내가 만든 원피스를 입혀보는 거야. 나 잠시 쉽게. 욕망의 도구가 된 기억. 욕망이 망가뜨린 관계. 다 발아래에 두고 나는 오늘도 눈을 깜박이지. 계단이 너무 높아. 아직도 난 바닥이란 말이지.

유희주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 2000년 『시인정신』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2007년 미주 중앙신문 문학상 평론 부문을 수상했다.

2015년 『인간과 문학』에 소설 『박하사탕』을 발표하며 소설 작품 활동도 시작했다. 시집으로 『떨어져나간 것들이 나를 살린다』 『엄마의 연애』, 산문집으로 『기억이 풍기는 봄방 (푸른사상)』이 있다.

유희주 작가는 매사추세츠 한인 도서관 관장, 민간 한국 문화원장, 레몬스터 한국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코리안리터닷컴(koreanlit.com)을 운영하고 있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은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Jay Lee

잘 하겠습니다!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 개발 투자 상담 환영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SOLD

1. 퀸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금주의 LISTINGS

LISTINGS



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

ASKING \$375,000



Springfield 지역 성업중 Full Plant Cleaner Shirts 포함

ASKING \$160,000



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

ASKING \$130,000



Allston, Brighton 한국 식당

ASKING \$168,000



캠브리지 비어 와인 패키지 store

ASKING \$200,000



Drop shop in Newton Location! Location!

ASKING \$49,000

Direct: Jay B. Lee 781.654.5281 jayblee@newstarrealty.com

TEL.617.467.5218 FAX.617.467.5273 www.newstarrealty.com 19 Needham St. Newton, MA 02461



이가 그릴 Regas Grill 구 아리랑 하우스

BOSTON 한국 BBQ Buffet 원조

“특선 우거지 갈비탕, 육개장, 곰탕“



최고의 한식당 BBQ 전문 Buffet 및 BBQ, A La Carte, Hot Pot Buffet Available 단체환영

Tel 978 725 5222, Fax 978 725 5223 regaskoreangrill.com 609 South Union St. Lawrence, MA 01843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야찾기	888-477-6721
백메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야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운전면허	617-351-4500
웰페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요금신청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연합가정선교연합회(N)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위원회	978-902-8305
NE교역자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위원회	617-833-1360
대매사주세초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781-854-8880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5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N협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임업진흥회(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대동문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리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람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인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장로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617-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장로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3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스프링필드교회협의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더 벨렘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엘리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위스프론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퀸시영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미사이딩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타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인뱅크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탕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김택은 Realtor	617-773-9330
백영주미용실	978-239-0141
송기백미용실	781-510-9924
송현미미용실	617-835-7664
순옥원미용실	508-737-8636
신현철미용실	617-947-6293
엘비미용실(채혜경)	617-868-2253
오성희미용실	617-275-3109
이경혜미용실	800-867-9000
이정선	781-883-5984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미용실(EXT. 125)	603-770-3491
정윤숙미용실	617-236-8600
프루덴셜(이효숙)미용실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미용실	603-845-2138
Premier Ralty Group	617-642-3156

돌상 대여/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켄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드)내과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해밀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566-1199
보스톤컨스테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Dunwoody) Pastoral Center Church

2018년 6월10일부터 9월2일까지
주일 미사 (Sunday)
 오전 7시 30분 (Korean)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30분 (Korean)
 (7월 첫 주부터 한시적으로 11시로 변경)
 오후 4시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30분

매달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
 (토) 오전 10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office.kccb@gmail.com / www.stdave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교회살을 노래하는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뒤임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781.492.766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IT'S TIME TO TRAVEL

4989 부동산 매대는

BH HS **버크셔 해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 금 오후 8:00
 새벽예배 :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지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n1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지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SALE

미 최대 안마의자 전시장
자체 안마의자 서비스 센터 운영

마사지체어 빅세일

이나나 드림웨이브 or 파나소닉 MAJ7

- ① 36개월 무이자 할부 + 다이슨 V7 무선청소기 증정
- ② 일시불 구입시: 반신욕기 or 삼성김치냉장고 무료증정

모든 안마체어 구입시
Up to 36개월 무이자 할부
다이슨 V7 무선청소기 증정



<p>명품마사지체어 INADA NEST</p> <p>\$7,900 \$6,000 24개월 + Tax</p>	<p>명품마사지체어 INADA FLEX 3S</p> <p>\$7,500 \$4,300 12개월 + Tax</p>	<p>명품마사지체어 INADA SOGNO</p> <p>\$7,999 12개월 + Tax</p>	<p>OSAKI OS Pro Maestro</p> <p>\$8,700 \$6,200 24개월 + Tax</p>
<p>PANASONIC MA73</p> <p>\$223 /월 36개월 + Tax</p>	<p>PANASONIC MA70</p> <p>\$139 /월 36개월 + Tax</p>	<p>PANASONIC 30007</p> <p>\$100 /월 36개월 + Tax</p>	<p>PANASONIC MA10</p> <p>\$83 /월 24개월 + Tax</p>
<p>POSITIVE POSTURE BRIO</p> <p>\$6,900 \$4,500 24개월 + Tax</p>	<p>APEX AP-Pro Reget</p> <p>\$100 /월 36개월 + Tax</p>	<p>APEX AP-Pro Lotus</p> <p>Open Box \$3,500 \$1,700 <i>Special Sale</i></p>	<p>APEX iCOZY <i>Leisure / Game / Movie Multi Purpose Massage Chair</i></p> <p>\$750</p>
<p>INFINITY IYASHI Zero Gravity</p> <p>\$172 /월 36개월 + Tax</p>	<p>COZZIA CZ 710 Qi SE</p> <p>\$166 /월 36개월 + Tax</p>	<p>COZZIA EC 326</p> <p>\$3,200 \$2,300</p>	<p>TITAN Pro 8400</p> <p>\$1,700</p>
<p>OSAKI OS Pro Omni</p> <p>\$3,700 \$2,780 <i>Special Sale</i></p>	<p>OSAKI TP 8500 Zero Gravity</p> <p>\$100 /월 36개월 + Tax</p>	<p>FUJIIRYOKI FJ 7900</p> <p>\$158 /월 36개월 + Tax</p>	<p>FUJIIRYOKI FJ 3800</p> <p>\$120 /월 60개월 + Tax</p>
<p>KAHUNA LM 8800</p> <p>\$5,800 \$1,700 <i>Display Unit</i></p>	<p>FUJIIRYOKI FJ 5000</p> <p>\$5,500 \$2,900 <i>3year warranty Display Unit</i></p>	<p>FUJIIRYOKI FJ 4600</p> <p>\$5,800 \$1,900 <i>3year warranty Display Unit</i></p>	<p>PANASONIC 30007</p> <p>\$2,500 <i>Floor Model</i></p>

ORDER NOW

HITRONS 보스톤 1666 Massachusetts Ave. **781-862-6867** www.hitrons.com
Lexington, MA 02420

HITRONS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857
201-941-0024
(리지필드 한양음 내)

베델전자 뉴욕지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718-445-2005
(코리아 빌리지 1층)

베델전자 한남체인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1-888-809-1167
(한남체인 폴내)

HITRONS 필라델피아 1222 Welsh Rd, Suite B28B3, North Wales PA 19154
215-368-1070
(아씨 플라자 필라지점)

HITRONS 메릴랜드 8801 Baltimore National Pk, Ellicott City MD 21043
410-465-7125
(Lotte Plaza Market(Ellcott City))

HITRONS Mattress 470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린컨노트 매장옆)
201-941-0010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박서준vs박민영, 달콤+살벌 신경전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김비서가 왜 그럴까" 박서준, 박민영가 신입 비서 면접에서 달콤살벌한 신경전을 펼친다.

6일 처음 방송된 tvN 새 수목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연출 박준화, 극본 정은영)는 재력, 얼굴, 수완까지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자기애로 뽀뽀 뚱뚱 '나르시시스트 부회장' 이영준(박서준 분)과 그를 완벽하게 보좌해온 '비서계 레전드' 김미소(박민영 분)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공개된 스틸은 신입 비서를 뽑기 위해 면접을 진행하는 부회장이 이영준과 그의 전속 비서 김미소의 모습을 담았다. '척 하면 척'하는 찰떡 같은 비즈니스 호흡을 자랑하던 두 사

람 사이에 '달콤살벌'한 신경전이 예고됐다.

스틸 속에서 이영준은 쇼파에 몸을 기대 채 매서운 눈으로 면접자를 바라본다. 그 옆에 앉아 있는 김미소는 면접자를 향해 환한 웃음을 보이고 있다. 이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옆에 앉은 이영준을 바라보는 김미소가 포착됐다. 이에 이영준 역시 김미소의 눈을 피하지 않고 눈썹을 꿈틀거리며 불만을 드러내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이는 신입 비서를 뽑기 싫은 이영준과 신입 비서를 뽑아야 하는 김미소가 달콤 살벌한 신경전을 펼치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특히 김미소가 퇴사를 하려는 이유를 알게 된 이영

준은 김미소에게 웬지 모를 서운함을 느끼며 신입 비서 면접에 참여한 상황이다. 이에 김미소의 퇴사 선언과 그 이유,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펼쳐질 이영준과 김미소의 '밀당 로맨스'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측은 "오늘 '김비서가 왜 그럴까'가 첫 방송됐다. 여름 밤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면서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유쾌함과 설렘, 나아가 공감까지 담긴 작품이다. 어느 샌가 절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배우, 스태프 모두 너무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노력하며 촬영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카카오페이지에서 조회수 5천만뷰를 기록한 동명의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해당 소설 기반의 웹툰 또한 누적조회수 2억뷰와 구독자 490만명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날 오후 9시 30분 첫 방송됐다.

eujenej@news1.kr



6월 10일 - 6월 16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주위를 잘 살펴야</p> <p>● 운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는 것 같아 애상 보람도 없고 기운이 빠지더라도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 금전: 바라는 만큼의 수입이 아니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 애정: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2, 14일 길일, 10, 16일 주의.</p>	<p>소띠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p> <p>● 운수: 남에게 좋은 것이라도 자신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은 따로 있으니 다시 찾아보세요. ● 금전: 기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뛰어다녀야 얻는 것이 늘어날 것입니다. ● 애정: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다보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마음먹지 않으면 질질 끌려가는 격이 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0, 12일 길일, 11, 15일 주의.</p>	<p>범띠 흥분한 마음으로</p> <p>● 운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심신이 편안해집니다.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전: 금전적으로 골치 아프게 했던 일들이 해결됩니다. 이제는 흥분한 마음으로 편히 잠잘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집안 분위기가 따뜻해지니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1, 16일 길일, 10, 15일 주의.</p>
<p>토끼띠 자극제로 여겨야</p> <p>● 운수: 하고자 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도 좌절하지 마세요. 현재의 난관을 새로운 원기를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자극제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 금전: 무엇이든 지 새로이 열고자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 애정: 있는 그대로 믿어주지 못하는 것이 슬픈 일이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2, 16일 길일, 10, 13일 주의.</p>	<p>용띠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p> <p>● 운수: 환한 햇살이 나에게 비취주시 밝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넘칩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되니 근심 걱정에서도 벗어납니다. ● 금전: 그동안 애산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줄만한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 애정: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나타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0,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뱀띠 이해하는 시선으로</p> <p>● 운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일해야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경 쓴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입니다. ● 금전: 남을 믿고 말하기에는 그리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처리해야 수익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이해하는 시선으로 보니 걸리던 것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니 상대에 대해 품는 마음이 관대해질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말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p> <p>● 운수: 조금 부족하고 더디게 하는 것같이 보여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 금전: 얼마나 느긋하게 잘 살아내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이득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 애정: 어찌 보면 자잘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상을 챙겨주는 마음에서 서로간의 정이 더 돈독해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1, 15일 길일, 13, 16일 주의.</p>	<p>양띠 희망의 끈을</p> <p>● 운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추진하세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이라도 도전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 금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조금씩 수입이 증가할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이 가다가도 자꾸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2, 16일 길일, 11, 14일 주의.</p>	<p>원숭이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p> <p>● 운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필요를 느끼면 다른 사람에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나서서 일을 만드세요. ● 금전: 급히 서둘러 일처리를 하려고 하면 도리어 득보다는 실이 많아집니다. ● 애정: 자기 스스로 변화를 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닭띠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p> <p>● 운수: 자신의 몸을 가버어 여기지 마세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마음의 행복도 있는 것입니다. ● 금전: 욕심만으로 무리하게 목표를 잡았다가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 애정: 마음이 편치 않으니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용서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가족의 허물은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1, 14일 길일, 13, 16일 주의.</p>	<p>개띠 생각을 바꿔서 보면</p> <p>● 운수: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실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금전: 매상이 예전 같지 않아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이런 저런 공리를 하게 됩니다. ● 애정: 한번 고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5, 16일 길일, 13, 14일 주의.</p>	<p>돼지띠 누가 먼저 깃발을 쫓느냐에 따라</p> <p>● 운수: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누가 먼저 깃발을 쫓느냐에 따라 소득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 애정: 애정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연인과 달콤한 사랑을 나누기에 좋을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6일 길일, 13, 15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5/11
Cambridge에 있는 카페에서 일할분 찾습니다.
영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는분.
T. 857-205-2307

5/11
세탁소에서 가족같이 일하실분 구합니다.
초보자도 가능, 시간은 원하시는 시간으로 협상가능.
T. 774-571-2837

'하트시그널2' 화제성 1위...8주 연속 기록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채널 A '하트시그널 시즌2'(이하 하트시그널2)가 '8주 연속 화제성 1위'에 올랐다.

4일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TV 화제성 지수에 따르면 '하트시그널2'는 무려 8주 연속 비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에 올랐다. '하트시그널2'는 점유율 9.02%의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2위 '이불밖은 위험해' (3.98%)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1일 방송된 '하트시그널2' 11회에서는 김현우와 오영주의 러브라인에 묘한 기류가 흐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시그널하우스 입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서로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또한 입주자들이 마지막 데이트를 앞두고 누구를 파트너로 정할지 고민하는 모습이 그려져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높였다.

한편 '하트시그널2'는 청춘 남녀들이 '시그널 하우스'에 같이 머물며 '무한 썸'을 타고 연예인 예측단이 이들의 '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추리하는 '러브 서스펜스'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 밤 11시11분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미우새' 김수미 남편 일화 공개 "뽀뽀 안 한지 40년 넘어" 폭소

(서울=뉴스1스타) 김주윤 기자 = 김수미가 남편과 일화를 소개해 큰 웃음을 안겼다.

3일 방송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김수미는 남편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예전에는 MBC가 정동에 있었다. 남편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과시하더라. 그게 꼴보기 싫어서 그만 두라고 했는데 정말 1년 만에 차를 바꾸더라" 이어 서장훈은 김수미가 남편과 스

킨십을 안 한지 30년이 넘었다고 질문했다. 김수미는 "남편과 뽀뽀 안 한지는 40년은 됐을 거다. 결혼하고 5, 6년 동안 그러고 끝난 것 같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김수미는 "우리 남편이 마흔에 당뇨가 왔고 원에 심근경색이 왔다. 정말로 저는 무수한 밤을 허벅지를 꼬집으며 지냈다"라고 말해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europa@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 2014 OTK DeCon Group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소공동

So Gong Dong Tofu & B.B.Q.

Allston & Burlington 프랜차이즈 모집

순두부 비빔밥 BBQ 전문 SGD DUBU 소공동 순두부에서는 퀴지에 이어 Allston과 Burlington 지역에 새로운 비전을 함께하실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SGD DUBU 소공동 순두부는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로 NJ, NY, IL, OH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매사추세츠 지역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문의: 박성종(617.304.7001), park0002@gmail.com



지점 안내 (총10개점)

www.sgdrestaurant.com

MA : Quincy, NJ : Palisades Park, E. Hanover, Edgewater, Hackensack
NY : Hartsdale, IL : Glenview, Schaumburg, Chicago, OH : Columb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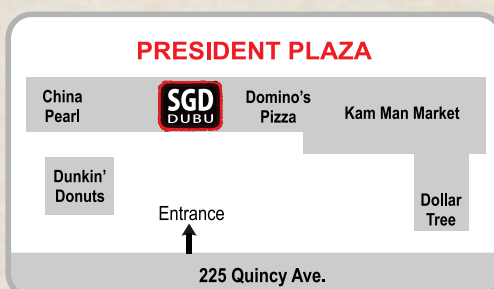


소공동

So Gong Dong Tofu & B.B.Q.

소공동 순부두, 보스톤 퀴지에 오픈!

품격있는 서비스, 편안한 인테리어, 웰빙푸드로
여러분을 명품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
월-일요일 오전11시-오후10시

617.302.4646
225 Quincy Ave. Quincy, MA 02169

5월의 봄빛 속에 형제봉우리에 오른 보스톤 산악회

금년들어 처음 5월 햇살이 맑은 주말, 봄기운이 가득찬 뉴햄프셔의 형제 봉우리를 다녀왔다.

보스톤 산악회의 베테랑 산악인들을 따라 간 오랜만의 멋진 산행이었다.

보스톤 북쪽 130 마일 뉴햄프셔 Waterville Valley 부근에 있는 Welch Mt (2,605 ft) 과 Dickey Mt (2,734 ft), 두 형제 봉우리는 거대한 마당바위들로 이루어져 있고, White Mountain 의 무수한 산줄기들이 과도처럼 지나가고 있다.

금년은 3, 4월에 유난히 눈폭풍과 곁들여 눈도 많이 와서 녹아 내리는 물은 조그만 개울, 바위들을 적시고 있어 미끄럽고 위험하기도 했지만 두 산봉우리의 확 트인 시야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넓혀 주었고, 봄 색깔이 완전한 연초록 계곡은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만들었다.

Welch로 먼저 올라 작은 계곡을 내려갔다 다시 Dickey를 올라 점심을 먹고 하산, 4.5 mile, 3시간 23분, 오름높이 1,801 Ft, 정상에는 아직도 녹지 않은 눈 덩어리가 산길에 있었고, 북쪽의 고봉들은 아직도 Snow silverline을 보여 주고 있었다.

기름쟁이 회장님의 리드를 따라 사니

조아, 산수유, 사샤, 오드리, 제뉴어리, 산수, 다산, 시내산 8분(무순)이 참여, 버섯 공부도 하고, 100년 된 이끼를 비롯 환경 보호 이야기도 나누었다.

뉴햄프셔 산에도 차가버섯이 자란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고, 말굽버섯을 비롯 여러 종류의 버섯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더군다나 바위에 피어 있는 초록색 이끼가 100년 되었다고 대단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여간 두 형제봉우리가 한국 표현으로 마당 바위여서 바위를 기어 올라가고, 걷고, 타고, 앉고, 한껏 즐기고 왔다.

산정 오솔길에는 군데군데 아직도 녹지 않은 눈이 얼음길을 만들고 있었고 북쪽 White Mountain 방향의 고봉들은 아직도 snow silverline 을 보여 주고 있었다.

산행일 : 2018년 5월 5일 (토)

Mt. Welch & Dicky Loop

Waterville valley N.H/약 2,700 ft

거리/오름높이 : 4.5mile/1650 ft

산행시간 : 약 3시간 30분

난이도 : 3.0 (5단계척도법)

보통(moderate)



Dickey 에서 바라보는 Welch



보스톤 산악회 회원들



뉴잉글랜드 과학기술자 연합 2018 골프 대회

6월23일 토요일 (Sat, June 23)

Registration 11:00-1:00pm (월드컵 경기관람)

Shot gun at 1:30pm

장소: Stow Acres GC, North Course
58 Randall Rd., Stow, MA 01775

경품: 근접상 New Scotty Cameron Putter 등 푸짐한 상품

등록: www.kseane.org

참가비:\$100 부부동반\$160

(카트, 간식, 연회비, 저녁식사포함)



Contacts : 윤정호 (jay1.yun@gmail.com), 최준영 (choi2524@gmail.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649회

내 곁에 누가 있는가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5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보며 무엇이 변
화되었는지 살펴보자. 변화되지 않았다면 제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인가. 아니면 뒤로 퇴
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나. 문득, 바쁘다
는 이유로 때로는 핑계를 대면서 오늘까지
왔다. 가정의 가장으로, 아빠로, 가정의 아내
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다 보면 나 자신을 돌
아볼 겨를 없이 훌쩍 뛰어넘은 오늘 앞에 그
만 말을 잃고 허탈할 때가 있다. 그 이름 불
여진 다른 이름 말고 그저, 나 자신의 시간을
들여다보자. 진정 얼마만큼의 나의 시간이
있었으며 그 주어진 시간을 잘 보냈는지 살
펴보자.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
는 환경적인 존재이다. 옛말에 남의 흥을 보
다 자신이 배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은
가. 그만큼 주변에서 자주 만나고 나누는 사
람의 습관이나 말투나 행동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닮게 마련이다. 그 사람을 잘 모
를 때는 그의 가까운 친구들을 만나보면 대
충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의 지난 시
간을 놔두고 그동안에 나와 자주 만나고 나
누고 지냈던 사람들은 누가 있었는지 생각해

해보자. 그 만났던 사람들의 영향은 또 다음
의 5년을 향하는 출발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주변의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역할을 하고 있었을까
. 삶에서 아주 작지만 커다란 변화의 시작점
이기도 하다. 가끔은 친하지는 않지만 생활
얘기를 주고받는 주변의 친구들에게서 우울
한 마음을 전해 듣기도 한다. 딱 꼬집어 '우
울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가슴이 답답한
얘기를 해오는 것이다. 누구한테 속 시원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는
그들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나 자신의 어두
운 부분을 누구에게 내놓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가정주부로 바쁘게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를 키우며 바쁘게 살아
왔다.

부부라는 관계는 둘이서 친하게 지내면 더
없이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기분
을 상하게 하면 남남처럼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는 알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
존'이라 했던가. 이렇듯, 부부 생활에서의
속상했던 부분들을 나누다 보면 나 자신의
숨겨졌던 부분도 간혹 툭툭거리며 빠져나오

는 것이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
다는 것은 반 이상의 치료가 시작된 것이리
라. 믿을만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반 이상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것이리라. 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우
울한 기분으로 있다면 어찌 그 본인에게만
영향이 미치지겠는가.

그래, 나도 답답했을 때가 있었다. 놀려진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런 때가 말이다. 계절이 바뀔 무렵이면 어김
없이 찾아왔던 나 자신에 대한 초조함과 불
안감이 있었다. 날개 접힌 새처럼 꿈을 모두
접어야 했던 '꿈과 사랑' 사이에서 고민했던
때가 있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엄마의 노릇
과 아내의 역할은 내게 너무도 큰 짐으로 다
가왔다. 아이를 재워 놓고 부엌에서 설거지
하며 창밖을 내다보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
렸다.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은 외로운 생
각들이 엄습해 오고 견딜 수 없는 우울한 생
각들이 나를 잡고 있었다.

이유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
리라. 부모 형제와 떨어져 살아서 외로웠던
그 외로움이 첫째의 이유일 테고, 아주 어려
서 이민 온 짝꿍(남편)과의 문화적인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친정 가족 없이 혼자인 내
주변의 시집 식구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였다. 그 이유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
게 지내다 한 5여 년 전, 마음의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좋은 두 사람을 만났다. 솔직한
마음을 꺼내 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속의
말들을 꺼내 놓기가 어려웠지만 조금씩 꺼내
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나 자
신의 흥 거리를 내어놓는 일처럼 얼굴이 붉
어지기도 하다가 울분과 속상함으로 열변을
토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그 작업이 거의 1여 년의 시간이 흘
렀다. 차츰, 나 자신 속의 공간이 생기게 되
니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토닥거려줄 수 있을 만큼의 마음
의 여유가 찾아왔다. 그런 과정을 거치며 나
자신과 함께 섭섭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에 대
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보기 연습이 시작
되었다. 그런 작업의 훈련은 새로운 세상으
로의 길을 안내하였다.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나 자신의 또 다른 세계가 있었음을
말이다. 내가 만나고 누렸던 그 행복의 시작
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내 곁에 누
가 있는가. 나는 누구의 곁에 서 있는가.



한담객설閑談客說: 이슬과 증류수

김화옥 |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찌푸린 하늘을
요동치는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
저 쪼그만 것들

작아서, 작아서
늘 아름다운 것들,

밑에서 밑에서
늘 서러운 것들.
(조태일, 이슬 곁에서)

생수生水. 이천 자연 시냇물을 끓여 식힌물
은 아니다. 단지 여과했을 뿐이다. 그렇게 들었
다. 그러니 생수는 적당히 불순물이 끼여 있고
미네랄도 섞여 있다. 약수藥水란 것도 있는데,
내 장인도 새벽이면 물통을 들고 약수를 받으
러 다니시곤 했다. 생수와 약수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건 모르겠다만, 분명 생수나 약수는
증류수는 아니다.

증류수 클럽. 내 아내의 학교적 친구들 모임
이름이다. 순수한 여자애들 모임이었으리라 짐
작한다. 증류蒸溜를 네이버가 정의했다. '액
체를 가열하여 생긴 기체를 냉각하여 다시 액

체로 만드는 일.' 말이 어려운데, 물을 끓일적
에 뚜껑에 맺히는 물방울이 증류수이다.

순금純金은 100% 금이다. 순금이 좋기는 한
데, 이슬이나 증류수처럼 마냥 서럽게 좋은 것
만은 아니다. 순금이라면 너무 물러 반지로 만
들 수 없기 때문이다. 반지는 적당히 이물질
이 섞여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강도剛
도가 살아나 반지로 쓸수있다. 내 결혼기념일
반지도 순금이 아니다. 옛적엔 금은방 이름중
엔 정금사精金社가 많았다.

몇개월전 한국신문 칼럼을 읽었다. '순백
사회의 역설'. 사회학자가 쓴 글이다. 완전무
결한 순백은 오히려 쓸모가 덜하다 했다. 순수
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는건 마땅하다. 하지만
사회가 그래서야 어디 돌아가겠냐는 거다. 흙
탕물 될까 두려워 움직이지 않고, 외출하지 않
는것과 같다고나 해야겠다. 마시는 물은 생수
여야 하고, 증류수는 아니다.

아내의 증류수클럽 모임은 계속 되는가? 아
내는 화학을 공부했고, 순수하기가 여전히 이
슬과 같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精金
같이 나오리라 (욥기 23:10)

안개가 자주 끼는가 싶다. 이른 새벽이면 이
슬을 만나기도 한다. 이슬은 잎사귀나 차창에
도 맺힌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제법 있다
는 말이고, 쳐다보는 것만도 맑기만 하다. 이슬

에 관한 시 한편이다. 읽기에 시가 서럽다. 너무
작고 맑아 서러운 거다.

안간힘을 쓰며



마음대로 골라본다

\$14⁹⁹



*전상품 무약정

Plus 상품

방송 3사

~~\$14.99~~

\$14⁹⁹

Premium 상품

방송 3사
지상파 / 케이블

~~\$24.99~~

\$24⁹⁹

VIP 상품

방송 3사 / 종편
지상파 / 케이블
Live / 스포츠

~~\$39.99~~

\$34⁹⁹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617-955-9112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442) 몇 개 회사 투자 위험

회사 주식을 직접 선택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근히 주식 대박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는 투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5,000여 개 회사 중에서 대박 날 회사를 선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25년 역사의 GE 회사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897년 처음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했던 12개 회사 가운데 아직도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미 대형 회사의 본보기였던 유명 GE 회사가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 시가총액 1,400억 달러(약 140조 원)가 1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 망한 Enron과 같은 회사 2개를 합한 회사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금융위기 때 파산한 Lehman Brothers와 GM 회사 두 개를 합한 숫자입니다. 한국 회사와 비교하면 현대차(34조 원)와 같은 큰 회사 4개가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2000년부터 계산해 보면 GE 주가가 무려 4,600억 달러(\$460 billion)나 사라졌습니다.

GE 회사는 글로벌 기업과 경영자에게 ‘경영학 교과서’ 였던 회사였습니다. 그야말로 회사로서는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주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회사로 미국국민에서 인식되었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GE 회사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가 43%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가폭락으로 투자 돈이 거의 1/3로 떨어진 것입니다. GE 주식 폭락을 계기로 일반 투자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 몇 가지를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는 ‘주식 대박’의 예를 미디어를 통해서 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EMC 주식을 \$16,000에 2000주를 구매했다가 이사하는 중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현재 시세로 500만 불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뉴스를 접하고 주식 대박을 기대하며 어떤 특정한 회사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잊었던 주식이 Enron, Lehman Brothers, GM과 같은 주식이라면 손에 남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투자했던 GE 주식을 발견해도 별로 값어치도 없고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몸담은 회사나 내가 선정해서 투자

한 회사가 제 2의 Apple, Alphabet (Google), Amazon이 되기를 희망하며 투자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일반 투자자에게 주식투자의 기본인 분산투자를 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마존의 창업자인 Jeff Bezos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미래에 대박 나는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투자 이익과 위험은 항상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을 기대하면 그만큼 투자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회사 주식 하나를 선정해서 투자하는 것과 10개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했을 때 당연히 한 개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성이 더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투자 위험성을 적게 하고 투자하면 수익률이 적어지지만, 투자 실패로 이어지는 않습니다.

GE 회사에 40여 년 일하고 꿈에 그리던 은퇴 생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Retirement Shock: Need to Find a Job After 40 Years at General Electric by Thomas Gryta, April 22, 2018, WSJ)이 되었습니다. 최근 폭락한 GE 주식

가격과 회사에 기대했던 은퇴자금(Pension)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GE 은퇴자는 약 600,000명이나 되는데 회사 은퇴자금은 무려 \$30 billion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16년 (한 CEO) 동안 GE 주식은 단 8%로 증가했지만, S&P 500은 214%로 증가했습니다. S&P 500은 500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기에 몇 개의 회사 투자 보다도 투자 위험성이 훨씬 적어집니다. 2004년 이후 S&P 500회사에서 1/4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했거나 개인사업체로 아니면 파산했습니다. 한 마디로 500대 기업에서 25%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회사를 선정해서 투자했다면 나의 소중한 돈이 종잇조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는 평균 수익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 동안 S&P 500 연평균은 11.69%였습니다. 50만 불 투자가 800만 불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투자 돈이 16배로 증가한 수익률입니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 “도박” 처럼 투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30 화랑세기花郎世紀, 8세 풍월주風月主 문노文弩(20)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수장이 되었다. 진흥왕의 총애를 받았던 미실의 설원랑과 미생 등과의 색사행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572년 동륜태자가 보명공주(진흥왕의 후비)의 치맛폭을 풀려고 어느날 밤 보명공의 담장을 넘다가 개에게 물려 죽으면서 미실과 동륜의 관계가 들통났고 또한 설원랑과 미생과의 관계도 밝혀졌다. 그로 인하여 미실은 출궁되었다. 동시에 원화의 자리도 박탈 당했다. 풍월주 세종이 지위를 회복하는 듯했으나 미실이 남편인 세종에게 같이 물러날 것을 강요하여 풍월주의 자리는 설원랑에게로 이어졌다. 그가 7세 풍월주이다. 이후 사도 왕후는 진흥왕에게 미실의 용서를 청하였고, 미실도 눈물로 용서를 빌어 진흥왕은 미실을 다시 입궁하여 옥중공을 마복자로 삼았다(미실이 출궁 당했을 기간에 옥중을 임신했으며 재입궁하여 임신한 상태에서 진흥왕에게 색공을 했다는 뜻이다. 옥중의 아버지는 세종이다).

576년, 진흥왕이 사망하였다. 진흥왕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할것을 확실히 되자 사도 왕후와 미실은 국정의 중심에서 실권을 잡았다. 여기에는 사도의 오라비 노리부와 미실의 남편 세종이 정치와 군사의 후견인들 이었다(화랑세기에는 노리부와 세종이 다른 인물로 등장한다). 그들은 차기 왕위를 동륜의 장자이며 진흥왕의 장손인 김백정이 아닌 진흥왕의 차자인 금륜태자에게로 잇기로 하였다. 그

리고 미실이 왕후가 된다는 각본이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금륜(진지왕)은 지도知識을 왕후로 삼았고 먼저 정을 통하고 왕후의 약속을 받은 미실은 총애를 잃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진지왕은 다른 많은 후궁들과 여색에 빠져 정사를 혼미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도태후는 미실과 함께 노리부와 세종을 앞세워 진지왕 폐위 거사를 단행하였다(579년). 이 당시 화랑도는 문노의 호국선과 설원랑의 운상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문노의 일문이 진지왕 폐위에 반기를 들까 우려하여 거사 중심세력인 사도와 미실, 노리부 등이 다시 미실을 원화로 세우고 세종을 상선上仙으로 문노를 아선亞仙으로 삼았다. 그리고 풍월주 설원랑에게 명하여 차기 풍월주 자리를 문노에게 넘기라고 하였다. 그래서 평소 세종을 존경하던 문노가 미실에게도 따르게 되었다. 하지만 문노는 미실을 좋아하지 않았다. 다만 존경하는 세종의 아내이기에 따랐을 뿐이었다. 문노의 세력을 휘하에 넣은 그들은 진지왕 폐위거사를 도모했으며 차기 왕위에 동륜의 장자 김백정을 제26대 신라의 왕 진평왕으로 등극시켰다. 왕은 어린 나이였지만 중년을 넘기고 있던 미실이 색도色道를 하였으며 그들 사이에서 딸 보화공주가 태어났다.

진평왕 초기에는 사도태후가 섭정을 하였고 미실은 새주璽主가 되었다. 거사의 군사를 지휘한 노리부는 상대등에 올랐다. 어린 진평

왕은 할아버지 진흥왕의 후궁들이 미실을 좌후右后에 보명을 우후右后에 임명하였고 그들로 부터의 색도는 계속되었다. 그 후 진평왕 7년인 585년에 미실의 동생인 미생이 10대 풍월주에 올랐다. 이때 하종이 부제가 되었는데 하종은 미실의 아들이다. 하종의 아버지는 세종인데 미실의 첫 연인 사다함의 아들이란 설도 있다. 미실은 말년인 진평왕 중기부터 영흥사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다. 남편과 정인인 설원랑도 함께 들어 갔으며 여러 남자와 관계하였지만 그녀는 설원랑을 가장 깊게 사랑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들 사이에서 아들 보종이 태어났는데 그는 후일 16세 풍월주가 되었다. 미실의 죽은 연도는 확실치 않는데 606년에 중병이 들었으며 김유신이 풍월주가 된 612년 까지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17세 풍월주 영장공조에 보면 612년 김유신이 풍월주가 되었을 때 유신의 외조모인 만호태후가 병에 걸린 미실을 위로하기 위하여 미실의 손녀인 하종의 딸 영모를 김유신과 혼인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미실의 일생이 삼국사기에 조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소설’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사실적實實的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2018 A+ Summer Program

July Session: July 2 – July 23, no class on July 4
August Session: July 30 – August 17

SAT Test Prep



Summer SAT Test Prep: 점수를 최대 250 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9-11학년 학생 대상: SummerSAT Test Prep

SAT 시험 예상 일시			
2018		2019	
August 25	November 3	March 9	June 1
October 6	December 1	May 4	

ASC A +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온라인 및 빠른 적응이 가능한 SAT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모든 수업 자료는 ASC 포털에 온라인으로 게시됩니다. ASC A + 프로그램 고유의 수업은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특정분야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A + SAT 학생들은 빠른 성적향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 약점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둔 온라인 및 빠른 적응이 가능한 실전 테스트.
- 혁신적인 학생 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 계획.
- 개인 맞춤형 테스트 전략 및 기술 개발.
- 최고 점수 향상을 위한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
- 실전과 동일한 시간과 내용의 테스트를 통한 진단.

Ivy League STEM Training



• Mathematics • Science

9-11학년 학생 대상: Summer STEM Training

A + 프로그램은 현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Ivy League STEM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은 Ivy League 코치의 STEM 과목에서 고급 교육을 받게되며 Ivy League에 적합한 대학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STEM 과정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제공됩니다. 각 수업은 Ivy League 강사 및 콘텐츠 전문가가 진행하며, 모든 수업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Ivy League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 Mathematics:**
- Algebra I and II
 - Trigonometry
 - AP Calculus
 - AP Statistics
 - Geometry
 - Pre-calculus
 - AP Calculus BC

Science (all at the AP level): • Biology • Chemistry • Physics



Locations & How to Apply

50 Sewall Ave.,
Brookline, MA 02446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Contact us at 617-730-3705 or 617-338-5288, or email to aplusinfo@ascenglish.com

Website: aplusprogram.com

Facebook: @aplusprogram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 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Boston Tel. 617-455-8073 Fax. 617-249-2088
Seoul Tel. 013-0533-9910
mwl@mwleecpa.com 또는 mwlee@kicpa.or.kr

주택소유자(Homeowner)를 위한 세무정보(2) : 주택임대소득(Residential rental income)의 과세방법

주택임대소득(residential rental income)은 그 주택이 임대목적용 주택인지, 별장(vacation home)인지, 임대인이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지 등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주택임대소득(rental income)에는 임대 대가로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따라서 매월 받는 월 임대료뿐만 아니라, 보증금(security deposit)중 마지막 달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 임차인이 임대인의 비용을 대신 지급한 금액 및 임차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 모두 임대소득이다.

이 때 미리 받은 선수임대료(advance rent)는 '실제 받은 날' 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임대소득으로 본다.

어떤 비용이 공제되나?

임대 비용(rental expenses)이란 임대와 관련한 경상적이고 필연적인 비용(ordinary and necessary expenses)을 말하는 것으로, 여느 다른 사업의 사업비용(business expenses)과 다를 바 없다. 이에는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이자, 교통비, 출장비, 각종 공과금, 세금, 각종 수수료, 전기료, 수도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실제 주택의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즉, 주택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

는 비용은 임대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임대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주택임대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액은 ①At-risk rule과 ②Passive activity limits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At-risk rule' 이란 쉽게 설명하면 실제 투자한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A가 어느 사업에 \$100,000을 투자했다면, A가 손해를 볼 최대금액은 \$100,000이다. 따라서 \$100,000을 초과하는 손실액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Passive activity limits' 란 부동산 임대사업과 같은 passive activity에서 발생한 손실은 다른 passive activity에서 발생한 이익과는 상계할 수 있으나, 급여 등과 같은non-passive activity에서 발생한 이익과는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즉, 부동산 임대손실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Passive activity limits규정에 따라 미공제된 손실은 이 후 연도로 이월되어 이월된 해의 passive activity 이익과 상계하고, 그래도 공제받지 못한 손실은 마지막으로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실로 처리된다.

Active participation인 경우 \$25,000까지 손실 인정

그런데 부동산 임대 손실의 경우Passive activity limits 규정에 불구하고, 임

대인이 적극적으로 임대활동에 관여(active participation-임차인 승인, 임대기간 결정, 지출내역 승인 등의 활동)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최대 \$25,000(과세기간 내내 부부가 따로 살면서 부부별도 신고시 \$12,500)까지non-passive activity 이익에서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100,000(부부별도 신고자는 \$50,00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phase-out)된다. 따라서 MAGI이 \$150,000을 초과한 임대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에서 발생한 손실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에 어느정도 적극적으로 활동 했느냐에 따라 최대 \$25,000까지 급여 등의 non-passive activity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할 수 있다.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미국내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은 항상 미국의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거주자도 미국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한다.

비거주자의 임대소득이 사업소득(business income)에 해당하면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아닌 passive income으로 구분되면 30%원천징수방법(flat 30% withholding)을 통해 과세된다. 다만, 이경우에도 비거주자가 본인의 임

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사업소득으로 과세해 달라고 신청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30%원천징수방법' 이란 임대 관리인이나 대리인 또는 임차인(lessee)이 비거주자인 임대인(lessor)에게 임대소득을 지급할 때 그지급액의 30%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IRS에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로 세금신고가 종결 된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방법' 이란 비거주자인 임대인이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청하면 이를 미국내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방법을 선택하면 비거주자는 30%의 원천징수를 당하지 않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임대소득의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반드시 Forms W-8ECI 을 작성하여 원천징수대리인(property manager, rental agent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의 미국내 주택임대소득은 비거주자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달라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30%원천징수방법' 이 먼저 적용된다. 따라서 원천징수대리인은 비거주자의 신청이 없다면 반드시 총지급액의 30%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대리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30%), 가산세(penalty)및 이자 등을 원천징수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대부분의 Dental Insurance와 Payment Plan 가능합니다

CORON

DENTAL STUDIO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약하세요.
www.corondental.com

6월 진료시간: 월, 금, 토

Mon: 10 to 6

Fri: 10 to 6

Sat: 10 to 4

투명교정 Invisalign, ClearCorrect
무삭제 라미네이트 Laminate Veneer
무절개 임플란트 CBCT Guided Implant
화이트닝 Zoom Whitening

Zoom 화이트닝

Unleash your **brightness**

Ask us about whitening with Philips Zoom

New Patient Special
Zoom Whitening \$199

Schedule your whitening appointment today!

Innovation + you



New Patient Special

Exam, Cleaning and Xrays
신규환자 스페셜 \$99

Zoom Whitening Special

화이트닝 스페셜 \$199

Refer a friend and get \$50 credit

지인분에게 추천해주시면 추천인당 50불씩 적립해 드립니다. 추천받아서 방문하신 분께도 50불 적립해드립니다.

CT 촬영과 3D 스캔으로 잇몸절개 없이 임플란트 시술합니다.



1626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MBTA Green line C line Washington Sq. station

www.corondental.com

En:(617) 250 -8545 한국어



카카오톡 ID
corondental

CORON

DENTAL STUDIO



성기주 변호사 칼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소식 (2018년 6월 둘째주)

● **이민수속 시간 (Processing Time)**
 트럼프 행정부하의 이민의 특징 중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이민관련 신청서들의 심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두 분야가 아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Form I-485의 경우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공통적으로 평균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이렇게 심사기간이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오랜기간을 불안하게 지내야 하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영주권이 나올거라고 위로드려도 당사자들에게 별 도움이 되는 위로는 안됩니다. 또한, 혹시나 거절될 경우를 대비해, 재정, 취업등에 대한 정리도 못하게 됩니다. 또다른 문제는 Form I-485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체검사서의 유효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Form I-485가 1년 이상 체류하게 되면 다시 신체검

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되면 수백불의 비용을 또 부담하게 되고요. 심사기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신청서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적어도 추가서류가 요구되는 것은 막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을 통한 2년 임시 영주권을 완전한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Form I-751은 현재 15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은 Form I-751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1년 더 연장이 됩니다. 7-개월이 걸리던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지금은 1년이 지나고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Form I-751을 신청하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은 특히 해외여행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도 기존의 6-7개월에서 현재는 거의 10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투자이민의 경우 처음 임시 영주권 신청에 2년, 2년 후 임시 영주권을 갱신하는데 또 2년 이상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에서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6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U 비자의 심사기간은 현재 38.3개월로 3년 이상 걸립니다. 대부분 신청자들이 사회적 약자들인데 좀 너무나 것 같네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서류 심사기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새로 생긴 취업영주권 인터뷰에서는 이 심사기간 중에 취업여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충분히 대비하시는 것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 **학생비자**
 최근 학생비자에 이민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비자와 비교해 학생비자의 장점 중 하나는 미국 입국 시 체류 기간을 D/S로 받는 것입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준말로 신분이 있는 한 미국에 언제까지나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즉, 다른비자와 다르게 체류할 수 있는 날짜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다른 장점은 학생신분 유지에 실패하더라도 정해진 체류 날짜가 없기 때문에 신분위반 (violation of status) 이긴 하지만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 학생신분으로 입국한 후 신분유지에 실패해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출국한 후 다시 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도는 고의든 실수든 신분유지에 실패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8월9일부터는 신분위반인 학생비자 신분자들도 다른 비자 신분자와 똑같이 신분위반일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됩니다. 특히 졸업과 동시에 OPT를 기다리는 경우 OPT가 기간되는 경우 불법체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대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송동호 로펌 법률 칼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야하는 한국의 상속법

요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거나, 부모님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 분들의 상속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받으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세금은 어디에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 질문의 종류와 깊이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교민으로서 한국 내 자산 상속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교민 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대한민국의 국적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바로 부모님(피상속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피상속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상속법이, 미국 국민이라면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녀(상속자)의 국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고객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10년 넘게 거주하셨습니다. 고객은 일찍 어머니를 여의시고 아버지를 미국에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고객과 다르게 아버지께서는 미국 영주권만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고객은 아버지께서 장

기간 미국에서 거주하셨고, 미국 영주권도 취득하셨고, 미국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는 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관계를 떠나 고객의 아버지께서는 사망 당시 한국인이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속법에 의해 상속절차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상속법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피상속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른 케이스들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자의 국적에 따라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는데, 미국법에 의하면 부동산 상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소재한 나라의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상속법이 적용되었을 시 어떤 방식으로 유산이 상속될까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하는 상속방식에는 크게 유언, 협의, 법정상속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상속은 다른 것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언이며, 피상속자의 유언을 최우선으로 해서 재산이 분배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자가 유언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

다. 누가 얼마를 상속받고, 어떻게 상속받는지 등 상속에 관한 모든 부분에 대해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정상속을 통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상속 순위는 (1)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직계비속이란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아래의 혈족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이 직계비속에 속합니다. 자녀의 경우 아들과 딸 구별이 없으며, 장남이나 차남도 구별 없이 모두 같은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태어나게 만들어 준 혈족을 말하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직계존속에 속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피상속자의 배우자입니다. 만약 피상속자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자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데, 이 경우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1.5배가 됩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폼위있는 그녀' 라는 드라마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드라마는 황혼의 나이에 아내를 잃은 재벌 회장

과, 회장과 그의 결혼을 목적으로 가정부로 위장 취업해서 회장에게 접근하는 한 여자, 그리고 이 여자의 속셈을 눈치챈 회장의 자녀들 간의 신경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적상속 시 배우자의 상속분을 알고서 이 드라마를 본다면 왜 그 여자는 회장과 그의 결혼에 목숨을 거는지, 왜 자녀들은 그 결혼을 필사적으로 막는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해외교민으로서 한국 내 재산을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상속법을 잘 몰라서, 한국의 형제들과 연락이 끊겨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칼럼의 내용이 본인에게 해당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상속법에 능통하고, 대한민국에서 상속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신속히 문의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송동호

종합로펌

고객이 신뢰하는

법률 브랜드

기업 고객

국제법 | 금융법 | 노동 및 고용법 | 보험회사 관련 소송
부동산 | 상법 및 M&A | 소송 | 이민법
임대임 . 임차인 관계법 | 지적 재산법 | 프랜차이즈법

개인 고객

가정법 | 노동 및 고용법 | 부동산 | 사고 상해 | 상법
세금 . 상속 . 유언 | 소송 | 이민법 | 임대인 . 임차인 관계법
지적 재산권 | 티켓 . 지역 법원 관련 업무 | 파산 | 형법

songlawfirm.com

SONGLAWFIRM

Boston Office . 385 Concord Ave. Ste 002, Belmont, MA 02478 | T 617.489.1327

HQ . Parker Plaza, 400 Kelby St, 7th Floor, Fort Lee, NJ 07024 | T 201.461.0031

mail@songlawfirm.com

CALIFORNIA | CONNECTICUT | D.C./VIRGINIA | GEORGIA | MARYLAND | MASSACHUSETTS | NEW JERSEY | NEW YORK | PENNSYLVANIA | TEXAS | KOREA | CHINA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20% 현금, 영주권,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남쪽 세탁소 풀 플랜트+드롭스토어(4개)+부동산 포함, 총연매상 \$1M+
매매가격 \$2.5M, 드롭스토어 각각 매매 가능 연매상 \$193,000 - \$280,000
드롭스토어는 100% 고용인이 경영, 부동산-상가건물+단독주택, 주차장(20대)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720,000
드롭스토어 연매상 \$180,000 렌트 \$800/월, 100% 고용인이 경영
총연매상 \$900,000 소유자 은퇴 (30년-건물주인)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40,000 소유자 은퇴 (25년)

보스톤 북쪽 헤어살롱, 연매상 \$80,000 아주고급동네, 좋은 렌트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보스톤 북서쪽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310,000+ 모든 기계 5년,
노 퍼크기계, 미국 주요 체인점들 다수 입점한 메이저 플라자, 소유자은퇴

보스톤 남동쪽 동양 식당, 풀리커 면허증, 연매상-\$400,000+

보스톤 서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40,000+부동산 매매, 소유자1명+직원4명

보스톤 남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보스톤 북쪽 드롭스토어, 연매상 \$100,000+ 고급동네 좋은 매매가격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드롭오프, 연매상 \$235,000 소유자 1명+직원

보스톤 북쪽 드랍+웃수선, 연매상 \$100,000 좋은 순수익

Woburn/Winchester 지역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330,000 소유자 은퇴(25년)

보스톤 서쪽 한국식당, 연매상 \$175,000 비어&와인 면허증 렌트 월 \$800

보스톤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노 퍼크기계,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드롭오프스토어, 연매상 \$500,000+
하이드로 카본 세탁기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된 비즈니스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 연매상 \$200,000+ 소유자 은퇴 아파트 지역

보스톤 북쪽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하이드로 카본 기계, 소유자 은퇴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4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새 기계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아카데미 프로그램

1. Weekend Program:

SAT 1, SAT II, AP수업

다년간의 경험의 강사진이 실전 문제와 새로운
문제유형에 따른 수업으로 단기간 고득점 완성

2. Tutoring Program:

학업 과목 개인 과외 알짜배기 강사진 보유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등, 학생에 맞는 최적의 강사를 선정

3. Special Program:

경시대회 준비반

수학경시대회(AMC/AIME), 외국어 경시 대회,
과학 올림피아드을 위한 전문 강사진

여름방학 단기4주 집중 프로그램

- 기간: 7/30-8/24/2018(M-F)
- 대상: SSAT program-Jr. High 8th & 9th / SAT1 program-High school 11th & 12th
- 강사진: Heather Morton, Kristin Frank, J.H. Choi
- 수업 자료: College board 포함, 실용 연습 문제 선집
- 참가 비용: 수업료- \$1,800(4 주)/ 재료비-\$100 별도
- 모집 인원: 6명 제한(수강료 납부 시, 등록 확정)

	SSAT	SAT1
09:00-12:00	Verbal, Reading & Math	Reading, Writing & Language, Math
12:00-01:00	Lunch	Lunch
01:00-04:30	SSAT Practice Test(2.5h)	SAT1 Practice Test(3.5h)
04:30-05:30	Note-taking & Study Hall	Note-taking & Study Hall

보스톤 교육원은 명문 사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지원, 그리고 현지 가디언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교육컨설팅업체로서,
20년 전통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내,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주중,말 학원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름 방학 4주 단기 집중 프로그램에서는 소수 정예의 밀착 관리형 수업이 SSAT와 SAT를 준비하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테스트 가이드라인과 문제 유형 별 선답 요령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전략들이 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진들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진다.(필요시, 부모 마음 점심도 별도 신청 가능)

상담전화: 339.234.5255~7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79 Great Rd. #220, Acton, MA 01720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